호남지뢰 연쇄폭발

metro®
메트로 2015년 9월 23일 수요일 제3307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2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국고채 3년)	환율(원·달러)
1982.06 (+17.38)	693.67 (+4.77)	1.62 (변동없음)	1179.00 (+2.50)

관리소장 임기보장 논란

서울시 "2년 보장하자" 국토부에 건의
주민단체 "관리소장이 공무원이냐" 반발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아파트 관리소장도 임기를 보장해주자는 취지의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아파트입주민대표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에 이어 서울시까지 아파트 관련 이해관계의 한 당사자인 관리소장 측을 일방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의구심이 배경에 깔려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임기를 최소한 2년간 보장하는 규정을 주택법에 삽입하자는 취지의 건의서를 지난달 31일 국토부에 냈다.

관리소장들이 동대표들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준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번한 관리소장 교체는 업무파악 부족과 책임회피 등 관리소홀로 이어져 결국 입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이 때문에 관리소장이 해고될 염려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시가 정부에 주택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연구에 들어가 5월 제출된 한국도시연구소(소장 박신영)의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보고서'를 이번 건의의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소장 임기제 도입에 찬반 설문조사 결과 관리소장의 84.2%와 입주민의 77.5%가 임기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아파트입주민들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회장 이재윤) 김원일 사무총장은 "관리소장은 입주민들이 돈을 주고 고용하는 일종의 직원 개념인데, 공무원처럼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서울시가 임기보장 도입 필요성으로 제기한 업무파악 부족과 책임회피, 그로 인한 입주민 피해는 동별 대표자 임기제한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서울시가 관리소장들을 통해 일방적으로 실시된 엉터리 여론조사를 근거로 뜬금없이 관리소장 임기보장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굳이 임기보장이 없어도 관리소장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0년 이상 같은 아파트에서 일하는 사례가 많다"며 "요즘은 관리소장이 되레 마음대로 아파트 행정을 좌지우지해 고용주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용주인 관리소장의 눈치를 보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입주민단체들은 국토부가 주민들이 직접 뽑는 동별 대표의 임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은 아파트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전아연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19명을 포함한 국회의원 73명으로부터 동대표 중임 제한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제출했다.

전아연 관계자는 "집주인은 무보수 명예직인 동대표로 봉사하고 싶어도 임기를 제한하면서 피고용인인 관리소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해준다는 것은 사적자치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 원칙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규제"라며 "서울시가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정부에 건의했기 때문에 우리도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동대표 중임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지난 2010년 7월 관리비 등 공동주택 비리를 근절한다는 이유로 동대표 임기를 한번에 2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면서 요즘은 선거를 해도 나서는 입후보자가 없어 동대표를 뽑지못해 기본적인 관리행정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동대표 자격 요건 중에 전과 여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한 것도 주민대표를 뽑는 걸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법시행령은 동대표 선출 시 ▲금고 이상 실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중인 사람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동대표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미운털' 사장 밀어내기?

주진형 한화증권 대표 삼성합병 반대 등 탓인듯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1일 제7차 이사회에서 신규 사내이사 후보 1인 추천과 후보자의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오는 11월 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하고 신임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현 대표이사(사진)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새 대표이사에는 여승주(55)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전략팀장(부사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여 부사장을 이사로 등재, 내년 주 대표의 임기가 끝나면 여 부사장을 대표에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그룹 측은 이달 초 주 대표에 '연임불가' 입장을 전달해둔 상태다.

주진형 사장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임시주총이 열리고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대해 주사장을 조기에 교체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한화그룹 구조본 관계자가 주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임을 통보했으나 주 사장이 중도해임은 법에 위배되므로 임기가 지 마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 사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 "원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라면서 "제가 이 회사에 올 때 임기보장을 요구했고 (그룹에서 보장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주 사장이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반대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증권사로서는 유일하게 '합병실패' 가능성을 지적한 보고서를 내놓은 사실 등으로 그룹쪽의 미움을 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이 한화증권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갔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Gold spoons and soil spoons in Choosuk

추석도 금수저 흙수저

Different reactions are shown among traditional market, SSM(super supermarkets) and department stores before the chusuk rush. While large retailers' Choosuk gift sales show more than 20% of growth, traditional market's sales have declined 10~20%.

An investigation was made to check the sales figure of Namdaemoon, Garak, Joongboo, Doksandong, Woo, Cheongnyangni, and vegetable and fruit market from the 20th to 21th and it turned out that the sales declined 10~20%.(Yet, the merchants who deal at wholesale rate remain roughly the same as last year.)

Even though the traditional market was full of customers, they hardly made a purchase.

According to the merchants, the number of customers are reduced to two-thirds and the sales volume has fallen off even more. On the contrary, the Chusuk gifts sales of SSM increased more than 10% compared to last year. Lotte department store's sales from the 7th to 20th in September, increased 16.8% compared to last year.

An industry official said "It is a recent trend for customers to purchase Choosuk gifts from large scale distributors. Conglomerates' violation of local business right is a problem. How would the merchants of traditional market compete with conglomerate's capital and strategy? Some practical solutions are needed."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백화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추석선물세트 매출이 10% 이상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은 10~20% 감소를 보이며 양극화된 모습이다.

20~21일 남대문시장, 가락시장, 중부시장, 독산동 우시장, 청량리농수산시장·청과물시장 상인 등에게 추석 매출을 확인한 결과 전년 대비 약 10~20% 감소했다. (다만 가락시장과 중부시장에서 상품을 도매로 취급하는 곳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손님들이 시장 거리를 채우고 있었지만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적었다. 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현재 시장을 채우고 있는 손님들도 3년 전의 3분의 2 수준으로 판매량은 그 이상으로 줄었다. 반면 주요 대형유통업체의 추석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10% 이상 늘었다. 롯데백화점의 9월 7일부터 20일까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8% 신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대형 유통업체에서 추석선물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도 문제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기업의 자본과 전략을 무슨 수로 이기겠는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정치

▲ 지난 15일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당 창당 선언과 20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에 이어 22일 **박주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또 다른 신당을 창당하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터지기만 기다리던 호남지역의 지뢰들이 연쇄 폭발한 셈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갓 돌도 지나지 않은 입양아에게 친부모의 밀린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돌고래급 잠수함(SSM)과 참수리급 고속정(PKM) 등 우리 해군이 보유한 **소형 함정**이 생수통을 들고 작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민관 유착 우려에 제한됐던 **공무원**의 대기업 민간근무가 허용된다. 삼성그룹 출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내놓은 정책이다.

사회

▲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로 저평가를 받은 기독대학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최저 등급을 받은 서울기독교대학의 후폭풍이 거세다.

▲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이 도주한 지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다.

▲ 길거리 음란 행위로 사직했던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22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KT **내부고발자 보호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처럼 KT의 청구를 기각했다.

▲ 포스코와 거래하며 납품 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평창올림픽선수촌 신축공사 착공식 22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용평리조트 용평돔 체육관에서 심재국 평창군수, 구닐라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정창주 용평리조트 대표이사(왼쪽 일곱번째부터)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착공식에서 시삽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경제

▲ 이동통신 3사가 23일 일제히 **애플워치**를 판매하기 시작한다. 판매 가격은 가장 저렴한 제품이 43만 9000원으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동일하다.

▲ **LG전자**의 사업본부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가전사업을 담당하는 H&A사업본부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가운데 VC(자동차 부품) 사업본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와 HE(홈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는 정체가 길어지고 있다.

▲ **SK루브리컨츠**가 스페인 정유사 렙솔과 스페인 현지에 윤활기유 공장을 세우고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 SK루브리컨츠와 렙솔의 합작법인 일복(ILBOC)은 22일(스페인 현지시각) 스페인 카르타헤나 윤활기유 공장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안토니오 브루파우 렙솔 회장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었다.

▲ 소상공인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추석명절 **소상공인** 업소 이용 호소'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업소를 이용해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2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2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며 전국 50여 개 점포에서 1500명의 근로자들이 출근을 멈추고 서울로 올라와 파업에 참여한다. 노조 측은 홈플러스 인수사인 MBK파트너스가 노조와의 직접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CJ푸드빌**이 2020년까지 '글로벌 외식 탑 10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1, 3층 사업권역에 자체 개발한 직영 브랜드 12개를 개점하고 글로벌 사업 도약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 올 들어 가파르게 상승해온 항공기 개발 업체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에 대한 엇갈린 전망에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회사에 출범 이후 전체 회수 채권 중 23%에 해당하는 1071억원을 위탁수수료를 지불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 **한화투자증권**이 대표 교체 수순을 밟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 사장이 그룹 '일감 몰아주기'에 반대하는 등 그룹의 미움을 산데 따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10월 중 중소형 증권사들은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기 위해 유상증자를 비롯한 자본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국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방문에 앞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에 대해 장기적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옥스퍼드 대학 시절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는 전기 내용이 폭로되면서 네티즌들의 조롱이 이어지는 등 여파가 이틀째 가라앉지 않고 있다.

▲ 미국 공화당이 유력 대선주자인 **벤 카슨**이 무슬림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말하자 민주당의 유력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반박하면서 미국 대선전에 때 아닌 무슬림 논쟁이 일고 있다.

▲ **애플**이 2019년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전기차 생산 계획에 착수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했다.

한국에 록히드-마틴 '호갱' 되라는 미국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발사 모습. /사진=록히드마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외부무장 시험 중인 F-35A. /사진=록히드마틴

韓, 주력제품 실험장 될 판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무산
사드 한반도 배치 다시 거론

한국이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호갱님'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차세대 전투기로 7조3000억원을 주고 F-35A를 사면서 약속받은 핵심기술 이전은 물 건너 갔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설 경우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배치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록히드-마틴은 항공기 업체인 록히드와 미사일 업체인 마틴 마리에타가 1995년 합병해 탄생했다. 사드까지 도입할 경우 한국은 록히드-마틴 주력제품의 실험장이 되는 셈이다. 록히드-마틴의 뒤에는 미국 정부가 있다. 기술이전을 불허한 미국 정부는 한국에 사드 배치 압박을 계속해 왔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대략 3조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정 총장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정부가 사드 배치에 드는 구체적인 비용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군 안팎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사드 2~3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데 대략 3조~4조원 가량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다.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 방어를 위해 평택이나 오산에 사드 한개 포대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모든 가능한 상황을 준비하는 게 핵심이다. 난 다른 국가(한국 포함)들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선 비관적"이라며 "개인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는 한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불신이 묻어났다. 한국은 현재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중이다.

록히드-마틴은 2013년 9월 공군회관에서 열린 '방공 포병 전투 발전 세미나'에서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려면 3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 기지 방어를 위한 한개 포대는 미국 부담이지만 나머지 2개 포대는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 가뜩이나 대형 무기도입 사업들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24조원 규모의 무기도입 비용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중국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우리 정부는 더욱 신중하게 사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날 정 총장도 "(사드 한반도 배치는) 여러가지 안보 요건을 고민해서 국방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 임박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국제정세는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전승절 열병식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한 '둥펑-21D'와 미군의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둥펑-26'을 선보였다. 북한은 곧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전망이다. 괌에 이미 사드 한개 포대를 설치한 미국은 추가로 한개 포대를 더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일본 오키나와와 요코스카 기지에도 사드 포대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사드 배치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돌도 안지난 입양아에게 친부모 체납건보료 독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갓 돌도 지나지 않은 입양아에게 친부모의 밀린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시대 삼정문란의 하나였던 황구첨정(黃口簽丁)을 연상시킨다. 건보공단은 또 독립운동가나 국가유공자 또는 그 후손들 가운데 1000여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자 상당수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입양된 아이에게 친부모의 체납 건보료 87만원을 부과했다. 이 아이는 지난해 9월에 태어나 올해 4월에 입양이 됐고 입양직후 건보공단이 입양된 가구에 아이의 이름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월 동안의 체납 건보료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보냈다. 또 양부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아이가 태어난 이후인 2014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체납된 건보료 6200원을 다시 부과했다. 남 의원이 입양관련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건보공단에서 입양아에게 친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일부 양부모는 대신 갚는 일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같은 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체납 중인 독립·국가 유공자 1099세대 중 818건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했다. 공단측은 국가 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득과 재산이 적어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가운데 98만1000 세대가 건보료를 체납했다. 건강보험의 연대납부 의무 때문에 지난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압류 조치를 받은 사례는 3만8980건에 달했다.

/송병형 기자

생수통 들고 바다로 작전 나가는 잠수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돌고래급 잠수함(SSM)과 참수리급 고속정(PKM) 등 우리 해군이 보유한 소형 함정이 생수통을 들고 작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참수리급 고속정 74척과 돌고래급 잠수함 2척은 조수기(선박에서 바닷물을 증류해 식수를 만드는 장치)나 정수기 등 식수공급 장치가 없어 각각 육상 및 해상 고속정 지원 기지와 모함에서 생수를 보급받는 형식으로 식수를 조달하고 있다. 또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209급 잠수함은 조수기의 내구 연한이 모두 3~8년 정도 초과됐고, 4000t급 구축함을 포함해 상륙함, 초계함, 기뢰전함 등 해군 전 함정에 걸쳐 상당수가 조수기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다.

/송병형 기자

천정배·박준영·박주선… 호남지뢰 연쇄폭발

"새정치, 사망선고 받은 정당" 박주선, 창당 선언하며 탈당 통합 신당 출범 가능성도

野 "호남민심 왜곡" 일축 문재인, 자택서 소통 노력

지난 12일 천정배(왼쪽) 무소속 의원의 차녀 미성씨 결혼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는 박주선 의원. 당시 결혼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의원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뉴시스

지난 15일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당 창당 선언과 20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에 이어 22일 박주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또 다른 신당을 창당하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터지기만 기다리던 호남지역의 지뢰들이 연쇄 폭발한 셈이다.

앞서 지난 4·29 재보선 당시 전북의 맹주로 통하는 정동영 전 의원까지 이탈한 상태라 새정치연합은 정치적 근거지인 호남 사수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새정치연합의 변화는 불가능하고 미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낡은 정당"이라며 "낡은 정치세력을 해체하고 거대 야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의 창조적 재편이 필수다. 운동권 중심의 정당에서 국정운영 능력이 검증되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인재들로 구성된 전문가 중심의 실용적 중도개혁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 실패를 심판하고 새누리당을 이탈한 보수층, 새정치연합에 넌더리난 민심,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무당층의 지지를 하나로 모아담는 국민정당을 건설해 총선·대선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점과 배제의 대립적 양당제 정치'를 한국 정치가 기본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요소로 꼽으면서 '다당제 정치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 '호남이 새정치연합에서 떨어져 나가느냐'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년 총선을 계기로 '호남과 비호남의 두개의 야당이 성립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우선 중도개혁 민생실용정당 창립의 기치를 들고 독자적인 정당 추진에 나서겠다"면서도 천 의원과 박 전 지사와의 통합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또 "그동안 (의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제가 먼저 탈당을 하고 터 파기 작업을 하면 참여할 의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내년 1월 되면 좋은 의원들로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를 분명히 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합류가 예상되는 인원에 대해 "호남 뿐 아니라 수도권(현역의원)까지도 포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잇따른 호남 인사들의 이탈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호남 민심의 왜곡"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분열의 원심력을 막기 위해 이날 이례적으로 자택에서 최고위원들과 만찬을 갖기로 했다.

문 대표 측은 "제대로 소통해 보자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위원들은 전원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공무원, 휴직 후 삼성·LG 등 근무 허용

대기업 경영기법 도입 취지 인사혁신처 개정령안 의결 민관유착 우려 해소 관건

민관 유착 우려에 제한됐던 공무원의 대기업 민간근무가 허용된다. 삼성그룹 출신 이근면(사진) 인사혁신처장이 내놓은 정책이다.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해 공직사회를 개혁하자는 취지이지만 민관 유착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일정 기간을 휴직한 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2002년 처음으로 민간근무 휴직제를 도입했지만 민관 유착 가능성을 우려해 대기업 근무는 제한해왔다. 도입 당시 민간근무 휴직제는 공직사회에 민간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관유착 우려가 제기되면서 잠정 중단됐다가 2012년 재개된 바 있다.

개정령안은 민간근무 휴직 이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고, 필요할 경우 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인 필수보직 기간을, 4급 이하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과장급은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고위공무원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특히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전보 인사를 낼 수 있는 사유를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 전문지식이나 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처 직위와 겸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송병형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집국장	강 세 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필리핀서 잇단 한인 피살… 추석연휴 여행 주의보

외교부, 현지조사 직접 나서 민다나오섬 방문 자제 당부

필리핀에서 우리국민 사망사고가 빈발하면서 외교부가 영사담당 국장을 직접 현지로 파견해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외교부는 추석 연휴 필리핀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은퇴자 부부 총기 피살사건에 이어 이달 17일에는 교민 사업가 총기 피살사건이 발생했다. 연간 필리핀 내 우리국민 피살자 수는 2013년 12명, 지난해 10명이었고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8명이다. 특히 필리핀 세부지역에선 다이빙 관광객 2명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3명의 우리 국민이 피살당하고 7월 세부에서는 다이빙을 하던 우리국민 2명이 사망하는 등 우리 국민에 대한 치안·안전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외교부는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을 23~25일 필리핀 현지에 파견해 우리국민 보호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씨마프랑카 필리핀 외교부 영사담당 차관보와 가르보 경찰청 차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이 자리에서 현지체류 우리국민과 관광객을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필리핀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마닐라와 세부 현지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어 현지 체류 우리국민들의 안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필리핀 현지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개인 안전에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별여행경보(여행금지)지역인 민다나오섬 등 지역을 방문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송병형 기자

노사정위, 내달 초 대타협 후속 논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은 22일 "노사정위에서는 이미 간사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후속과제, 향후 논의 일정 등을 협의해서 지금 현재 곧바로 10월 초면 후속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노사정 대표 오찬 자리에서 "앞으로 과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타협 과정에서 형성된 노사정 간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더 공고히 하는 작업"이라며 이러한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 논의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 실제 이행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을 면밀히 평가하고 대통령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이번 합의안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 일반 국민뿐 아니라 저희 전문가들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좋다', '나쁘다' 하는 논의가 있다"며 "그래서 10월 초 토론회를 통해 이 부분을 정리하고 내용과 해설을 브로슈어를 제작해 언론사와 관계기관, 일반 국민께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타협이 마무리된 것은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뒷받침됐다"며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후속논의) 과정도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전과자 관리 안돼… 집중관리 법적근거 시급

'첩보수집' 법적 규정 없어 개정안 3년째 국회 계류 중

3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김일곤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우범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우범자들의 첩보를 파악할 때 우범자들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조항이 없어 경찰의 첩보활동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실형을 받고 나온 전과자를 대상으로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해 우범자로 지정·관리한다.

우범자 관리 대상은 조직폭력범죄와 살인·방화·강도·절도·강간·강제추행·마약 등 8개 죄종에 한정된다.

경찰이 교도소 측으로부터 전과자의 출소 통보를 받으면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우범자로의 편입 여부와 등급을 결정한다.

조직폭력배는 형사가, 나머지 우범자는 지구대·파출소 경찰이 첩보 수집을 담당한다.

김일곤이 우범자로 지정돼 경찰이 관련 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더라면 김씨가 경기도 일산에서 한차례 여성 납치에 실패하고 재차 이달 납치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검거됐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3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김일곤. /연합뉴스

김씨가 2013년 3년 출소 당시 교도소 측이 출소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아 김씨가 우범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설령 김씨가 우범자로 지정됐더라도 납치 살인을 예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우범자 동향파악이 '비(非)대면 간접 관찰' 방식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즉 멀리서 지켜보는 수준에 그쳐 우범자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는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이 경찰 내부 훈령에 불과해 첩보수집 활동에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는 데 따른 현실이다.

예컨대 우범자가 주거지에서 갑작스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경찰은 우범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이 우범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물어보거나 통신수사를 통해 우범자의 위치를 파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관리 대상 우범자 4만670명 중 10.8%에 달하는 4374명이 소재불명자로 처리가 된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경찰은 우범자 첩보수집의 법적 근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온 '경찰이 치안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경찰 직무의 범위가 '이러이러하다'고 정의한 조항으로, 우범자 첩보 수집의 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경찰은 우범자 첩보 수집 규칙의 제6조의 제4항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란 모호한 규정에 따라 우범자의 동향을 파악하는 셈이다.

이런 방식의 동향파악은 반대로 우범자들의 인권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찰이 무리하게 탐문을 벌이다 보면 우범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범자 첩보관리 규칙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반영하고 우범자의 강제 수용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3년째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우범자는 경찰의 주거 방문·질문 등 정보수집 활동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몰래 변론' 고검장 출신 변호사 징계

'김무성 사위 사건' 포함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다 징계가 청구된 사건에 최근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모(38)씨의 마약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변호사는 7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 선임신고서(선임계)를 내지 않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변협에 징계가 청구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법원에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화 변론'을 막기 위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을 변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변협에 징계가 청구된 7건 중에는 김 대표 사위인 이씨의 마약투약 사건도 포함됐다. 이씨가 올해 2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 '봐주기' 논란을 야기했던 사건이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씨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사본도 있다"고 해명한 상태다. /연미란 기자

고법 "내부고발자 해임 부당"… KT 청구 기각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22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KT 내부고발자 보호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처럼 KT의 청구를 기각했다.

KT 직원이었던 이해관(52)씨는 KT가 2010~2011년 제주 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에서 소비자를 기만해 부당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2012년 권익위에 제보했다.

KT는 투표 전화가 국내전화임에도 국제전화 요금으로 속여 받고 문자 투표도 건당 100원짜리를 150원으로 부과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KT는 이씨가 허리 통증으로 무단결근하고 공익제보자 관련 상을 받기 위해 1시간 일찍 무단 조퇴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2년 12월 이씨를 해고했다. /연미란 기자

추석연휴 대중교통 연장운행

시내버스·지하철, 새벽 2시까지
의료기관·약국 613곳 문 열어

추석 연휴인 27일과 28일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오전 2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 613곳도 연휴기간 문을 연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종합대책을 마련해 30일까지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24일부터 29일까지 하루 평균 1805회 증편 운행한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추석 당일인 27일부터 이틀간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심야시간대에는 올빼미버스(오후 11시40분~다음날 오전 5시 운영) 8개 노선과 심야전용택시(오후 9시~다음날 오전 9시) 2100여대를 운영한다.

서울시립묘지를 찾는 성묘객을 위해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4개 노선 시내버스도 60차례 증편한다. 26~29일에는 순환버스 4대를 무료 운영한다.

연휴기간 응급 환자에 대비해 당직·응급의료기관 215곳과 약국 398곳이 문을 연다.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 등은 관련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1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쓰레기가 쌓일 것에 대비해 '청소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과 극장가 등에는 청소순찰기동반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 대비한 연휴기간 비상근무체계도 유지한다.

추석 전에는 추석 상차림에 필요한 사과와 배, 대추, 조기 등 9개 성수품을 평균 반입물량보다 10% 추가로 가락시장에 반입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303개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의 이용을 돕고자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도 완화한다.

또 독거노인과 쪽방거주민 등 1800여가구에 차례용품을 전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 13만 3000가구에는 가구당 위문품비 3만원을, 결식우려가 있는 어린이 4만 5000명에게는 도시락 등 급식을 제공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25일부터 30일까지 하루 평균 150여명이 근무하는 추석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다산콜센터도 추석 연휴 기간 교통과 의료, 문화행사 정보 등을 안내한다. /연미란 기자

檢, 박재천 징역 2년6월 구형

<코스틸 회장>

'회삿돈 135억 횡령' 혐의
朴 "진심으로 뉘우친다"

포스코와 거래하며 납품 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해 135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천(59·사진) 코스틸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빼돌린 돈을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 대부분을 회복했다"며 "피고인이 소유한 회사는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보다 낮은 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인정한다. 회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사채를 끌어썼고 사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비자금을 조성하게 됐다"면서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비자금을 사용한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회사가 어려워지고 임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코스틸이 철선의 재료가 되는 철강부산물 '슬래브'를 포스코에서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재판 도중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박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가을 하늘과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등들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일주일여 앞둔 22일 오후 경남 진주시 진주성 남강에 손님맞을 준비를 끝낸 유등들이 떠있다. /연합뉴스

"ISD관련 청구액·계산 근거 공개하라"

민변 "국제중재에 국민 세금 소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택근 회장)이 론스타, 만수르에 이어 세 번째 제기된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 법무부에 청구액과 계산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란계 가전업체 엔텍합그룹은 지난 14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를 제기한 상태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22일 "국제중재에는 1차적으로 중재비용, 2차적으로 패소시의 배상액 또는 합의시의 합의금 등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소요된다"며 "납세자인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외국기업이 도대체 얼마를, 무슨 근거로 청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국제중재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해 법무부가 정보 공개 의무자"라면서 "법무부는 무작정 정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부처에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엔텍합 국제중재뿐만 아니라 론스타가 회부한 국제중재와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국제석유투자회사(IPIC)하노칼이 회부한 국제중재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변은 현재 론스타 국제중재의 청구액 계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민변은 법무부가 만수르 국제중재의 청구액 및 그 계산내역을 비공개한 데 대응해 지난 16일 국세청에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연미란 기자

"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 파면 적법"

法 "업무강도 가중했다 보기 어려워"

법원이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00여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2일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우체국 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집배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우체국은 A씨의 장애를 감안해 배달이 비교적 쉬운 복도식 아파트 밀집 지역의 배달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가 같은 해 7월 어느 날 밤 배달하지 않은 우편물 705통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천변에 버렸기 때문이다. 600통이 대형마트 홍보 우편물이었고 일반서신이 10통, 국세청 우편물이 20통 포함돼 있었다.

이 우편물은 다음날 민간인이 발견해 신고하면서 A씨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 새벽 2시까지 집배업무를 해야했다. 파면 처분은 우정사업본부의 징계 규칙 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넘고 있다"며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1일 평균 배달이동거리는 왕복 22㎞ 정도로, 같은 우체국의 다른 집배원들의 평균이동거리인 35㎞보다 적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업무강도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가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우정공무원으로 임용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유기했다. 그 양이 많고 비위행위가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한 범죄에도 해당한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연미란 기자

LG전자, 백색가전 튼튼… 스마트폰·TV는?

사업본부별 명암 엇갈려
H&A, 영업익 절반가량 책임
MC·HE는 불안과 기대 교차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가전 로드쇼에 참가한 소비자들이 LG전자 프리미엄 냉장고를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의 사업본부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H&A사업본부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가운데 VC(자동차부품) 사업본부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와 HE(홈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는 정체가 길어지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와 전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LG전자는 매출 13조원 안팎, 영업이익 2100억~25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H&A사업본부가 3분기 LG전자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는 H&A사업본부의 영업이익을 15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H&A사업본부는 LG전자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나머지 사업의 기복이 심한 가운데 H&A사업본부는 시장지배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견조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4분기 역시 H&A사업본부가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LG전자의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백색가전은 소비자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요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 차별화된 제품 출시와 현지화 마케팅,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통한 수익률 향상과 기업간거래(B2B) 시장 확대 등이 예상 되면서 LG전자의 H&A사업본부는 당분간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VC사업본부는 3분기에 약 2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성장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향후 전기자동차와 스마트카 시장이 개화하면 본격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VC사업본부는 인포테인먼트 부품은 물론 안전편의장치와 차량엔지니어링 등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 2억원에 머물렀던 MC사업본부와 영업적자 827억원을 기록한 HE사업본부의 영업이익은 개선될 전망이다. 3분기에 MC·HE사업본부는 각각 600억~8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글로벌 스마트폰·TV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LG전자가 확실한 제품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음달 공개하는 슈퍼폰(가칭)과 올레드 TV의 성적표가 향후 두 사업본부의 입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와 함께"

13만 LG인 동참
문화활동 저변확대 노력

김종덕 문체부 장관(왼쪽)과 하현회 ㈜LG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 제공

LG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문화가 있는 날'을 알리고 문화 소비 확대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LG와 문체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김종덕 문체부 장관, 하현회 ㈜LG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 장관은 "LG는 국내 임직원이 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LG의 '문화가 있는 날' 동참은 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사장은 "LG는 2005년 설립한 LG아트센터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공연을 국내에 소개하며 고급문화 대중화에 힘써왔다"며 "문화 융성을 통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LG는 '문화가 있는 날'의 의미와 혜택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LG전자·LG화학·LG유플러스 등은 사내 게시판과 사보를 통해 매달 '문화가 있는 날'의 각종 공연, 시설, 이용 혜택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한다. 해당 일의 정시 퇴근을 장려해 직원들이 문화 소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LG는 공연 할인, 소외 계층 문화 활동 지원, 임직원 문화 공간 조성 등 문화 저변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조한진 기자

LGD, 이색 채용설명회 '테크니컬 톡' 열어

경영진·학생 등 520명 참여
한상범 사장 '이청득심' 강조

LG디스플레이 상반기 구미 테크톡.

LG디스플레이(대표이사 사장 한상범)가 연구개발(R&D)관련 우수 인재확보를 위해 이색 채용설명회를 열었다.

LG디스플레이는 22일 파주 사업장에서 한상범 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KAIST 등 수도권을 대표하는 11개 대학·과학기술원 이공계 학생과 교수 등 총 520명이 함께한 '테크니컬 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룹별로 채용 상담을 가진 뒤 LG디스플레이의 전시관을 견학했으며 이후 기술 강의 세션을 청취했다. 세션에는 고성제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디스플레이에서의 영상처리 기술 및 응용' 특강을 했다. 권오경 한양대 교수, 명재민 연세대 교수, 장진 경희대 교수, 조규진 서울대 교수 등도 디스플레이 관련 특강을 가졌다.

행사 마지막에는 한상범 사장이 '변화와 혁신의 시대, 그리고 내일을 향한 꿈과 도전'을 주제로 한 강연을 펼쳐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상범 사장은 "급변하는 환경과 변화의 시대에는 변화하는 환경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대로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미래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큰 꿈을 품고, 창의력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끈질기게 도전해 나가야 한다"고 꿈을 가진 인재들의 도전을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마음을 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는 '이청득심(以聽得心)', 즉 귀 기울여 경청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김성민 LG디스플레이 HR그룹장(상무)은 "이번 설명회에는 미래 엔지니어들이 디스플레이 산업과 기술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맞춤형 디스플레이 특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미래 엔지니어 육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V낸드 SSD' 신규 라인업 출시

삼성전자가 3세대(48단) V낸드 기반 소비자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와 초고속 NVMe(불휘발성 메모리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 기반 기업용 SSD 등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22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삼성 SSD 글로벌 서밋'을 열고 V낸드 기반 SSD 신제품 5개 제품군(용량별 19개 모델)을 선보였다. 이달부터 한국, 미국, 중국, 독일 등 세계 50개국에 출시한다. 신제품은 3세대(48단) V낸드 기반 ▲2.5인치 소비자용 SSD '850 EVO' ▲5초만에 울트라슬림 노트북을 부팅하고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인 2세대 128Gb V낸드 기반 초고속 기업용 SSD '950 PRO' M.2 ▲현존하는 SSD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구현한 NVMe 기반의 카드타입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용 SSD 'PM1725' ▲데이터센터용 SSD 'SM863 ▲'PM863' 등 5종이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프리미엄 무선 오디오 시장 공략

기본 충실한 곡면 사운드 바 출시
실속형에서 프리미엄까지 확보

LG전자는 프리미엄 곡면 사운드바(LAS855M)를 출시하고 프리미엄 오디오 시장을 공략한다고 22일 밝혔다.

메탈 소재를 적용한 이 제품은 곡면 디자인을 적용, 소리를 청취자 쪽으로 모아줘 현장감을 높였다. 복잡한 연결선 없이 본체와 서브 우퍼를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 4.1채널 360W(와트)의 강력한 출력에 좌, 우 각각 2개씩 총 4개의 트위터 스피커를 탑재해 더 자연스럽고 깨끗한 음질을 제공하고, LG전자만의 독자 음향기술 SFX도 적용했다.

아울러 LG전자는 가격을 낮춘 실속형 사운드 바(LAS260B)도 함께 선보였다. 이 제품은 100와트(W) 출력의 사운드와 블루투스 기능을 갖췄다.

LG전자는 이번에 신제품 2종을 출시하며 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 총 6종의 사운드 바를 확보했다. 가격은 프리미엄 사운드 바가 79만9000원, 실속형 사운드 바는 19만9000원이다.

/조한진 기자

SK루브리컨츠, 유럽 윤활기유 시장 공략

최태원 '글로벌 경영' 결실
스페인 최대 정유사와 맞손
유럽 최대규모 공장 준공

고급 윤활기유 연간 63만톤
세계 3위 제조업체 도약

SK루브리컨츠가 스페인 정유사 렙솔과 손잡고 22일 스페인 현지에 윤활기유 공장을 세우고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해외진출 전략인 '글로벌 파트너링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최 회장은 2011년 안토니오 브루파우 렙솔 회장을 만나 고급 윤활기유 합작모델을 제안하는 등 이번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SK루브리컨츠와 렙솔의 합작법인 일복(ILBOC)은 이날(스페인 현지시간) 스페인 카르타헤나 윤활기유 공장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안토니오 브루파우 렙솔 회장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었다.

21일(현지시간) 빅토리아 징고니 렙솔 다운스트림 사장(왼쪽부터), 조수 존 이마즈 렙솔 CEO,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기화 SK루브리컨츠 사장이 리셉션 만찬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SK루브리컨츠 제공

카르타헤나 공장은 2012년 10월부터 총 3억3000만 유로(한화 약 4700억원)가 투자돼 지난해 9월 완공됐다.

유럽 최대 규모의 윤활기유 공장인 카르타헤나 공장은 고급 윤활기유를 연간 63만톤씩 생산할 수 있다.

윤활기유는 윤활유의 원료이며 윤활기유에 첨가제 등을 추가하면 자동차 등에 널리 쓰이는 윤활유가 된다.

최 회장은 "카르타헤나 공장 준공으로 스페인과 한국 기업간 최대 규모의 합작사업이 결실을 맺었다"며 "SK와 렙솔은 글로벌 석유업계가 주목하는 합작모델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카르타헤나 공장은 지난해 10월 상업생산을 시작한 뒤 현재 10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생산된 윤활기유는 SK와 렙솔을 통해 유럽 윤활유 업체들에 판매되고 있다.

최 회장은 "이번 사업은 양사 간 협력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석유,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브루파우 회장은 "SK라는 믿음직한 파트너를 만나 합작사업을 성공시켰다"며 "SK와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루브리컨츠는 카르타헤나 공장 준공으로 최대의 고급 윤활유 수요처인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또한 울산과 인도네시아 두마이 등 3개 공장에서 하루 7만800배럴(연 350만톤)의 윤활기유를 생산하게 돼 엑슨 모빌, 쉘에 이어 세계 3위의 윤활기유 제조업체로 도약했다.

SK루브리컨츠 측은 "SK는 기술과 마케팅, 렙솔은 원료와 인프라를 책임지는 모델을 구축했다"며 "현지에서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는 사업구조를 만들어낸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스페인에 이어 네덜란드와 스위스를 잇달아 방문해 에너지·반도체 사업 영역의 글로벌 경영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네덜란드 펠트호벤에서는 반도체장비업체인 ASML사를 찾아 반도체 제조용 노광장비 시설을 둘러본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 3위 원유·석유 트레이딩 회사인 트라피규라사의 클로드 도팽 회장과 제레미 위어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준 수펙스추구협의회 글로벌성장위원장, 이기화 SK루브리컨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 호세 마뉴엘 소리아 스페인 산업·에너지·관광부 장관과 박희권 주 스페인 한국대사 등 양국 정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車 업계, 고향가는 길 '안전' 책임진다

고속道 휴게소 무상점검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국내 완성차 업계가 추석을 맞아 무상점검 서비스에 나선다.

22일 각사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는 25일부터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총 35개 지점에 서비스코너를 마련하고 냉각수, 브레이크, 배터리, 전구류, 타이어 공기압 등 안전 운행을 위한 사항들을 점검해준다.

오일류, 와이퍼 블레이드 등 소모품도 무상으로 교환해 줄 예정이다.

필요시 항균·탈취 서비스, 스캐너 점검 등의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

또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사고발생 시 필요한 조치와 견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국지엠은 25~28일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엔진과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해 준다.

또 와이퍼 블레이드, 전구류 등 소모성 부품과 냉각수·엔진오일 보충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고객들이 가까운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쌍용차도 추석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 상하행선 10개 휴게소에서 장거리 주행에 필요한 차량 기본 점검·소모성 부품 무상교환 서비스를 실시한다.

각종 오일류, 부동액, 워셔액 보충, 엔진, 브레이크 등 일상 점검과 공조시스템·실내 살균 탈취 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경부(안성), 영동(여주), 중부(음성), 호남(정읍), 남해(진영) 등에서 실시한다.

'추석 맞이 무상점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각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기 기자

현대重, 협력사에 납품대금 조기지급

6일 앞당긴 24일 1950억 지급
르노삼성은 25일 193억 지불
협력사, 추석 전 자금줄 숨통

국내 대기업들이 추석을 맞아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지급 한다.

22일 현대중공업은 협력사가 납품한 자재의 대금을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협력회사들이 9월 11~20일까지 납품한 자재의 대금이다.

현대중공업은 정기지급일인 30일보다 6일 앞당긴 24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기지급은 명절 귀향비와 상여금 지급 등으로 인해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협력회사들의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조기지급의 혜택을 받는 협력회사는 2156개사다. 금액은 약 1950억원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협력회사와의 상생 없이는 지금의 조선업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자동차도 추석을 앞두고 중소협력사 물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르노삼성은 9월 16~18일 입고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추석 전인 25일에 지불할 계획이다. 총 191개사, 193억원의 물품 대금을 기존 지급일보다 15일 앞당겨 조기 지급하는 것이다.

곽이식 르노삼성 상생협력추진팀장은 "추석 귀향비, 상여금 등 협력사들의 명절 자금 수요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명절 전에 물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렉서스
고객초청 자선 골프대회
암센터 등 3050만원 기부

렉서스는 제주도에서 '제15회 렉서스 고객초청 자선 골프대회'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2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렉서스 고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렉서스는 국내 판매를 시작한 2001년부터 렉서스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초청 자선 골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고객들의 참가비와 고객기증 물품의 자선바자를 통해 마련된 기금을 '암 연구 기금마련', '소아암 어린이 돕기'에 기증해왔다.

요시다 아키히사 렉서스코리아 사장(왼쪽부터), 렉서스 고객, 이동환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가 '자선 바자회 기금' 기탁을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렉서스 제공

올해 대회에서는 참가비 총 2025만원과 자선바자회와 자선경매를 통해 모금된 1025만원 전액을 각각 국립암센터와 아름다운 가게에 기탁했다.

/정용기 기자

'뉴 MINI 컨트리맨 파크레인' 4520만원부터

BMW, 디자인에디션 2종 출시

BMW의 소형차 브랜드 MINI(미니)는 '뉴 MINI 컨트리맨 파크레인 에디션(이하 컨트리맨 파크레인·사진)'을 22일 출시했다.

컨트리맨 파크레인은 뉴 MINI 컨트리맨의 디자인 에디션 모델이다.

파크레인 에디션은 4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된 'MINI 쿠퍼 D 컨트리맨 ALL4', 'MINI 쿠퍼 SD 컨트리맨 ALL4' 등 2종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쿠퍼 D 컨트리맨 ALL4가 4520만원, 쿠퍼 SD 컨트리맨 ALL4가 4950만원이다.

컨트리맨 파크레인 MINI 컨트리맨의 다양한 활용도와 효율성, 강력한 주행 성능은 유지했다.

차체는 얼그레이 메탈릭 컬러로 마감됐다.

/정용기 기자

NHN엔터·카카오가 만든 '프렌즈팝' 승승장구

각종 앱장터 상위권… 일활성이용자 230여만명으로 껑충
카카오프렌즈 IP 이용해 접근성 높여… 콘텐츠 장점으로

NHN엔터테이먼트의 개발 자회사 NHN픽셀큐브와 카카오가 공동 개발한 퍼즐게임인 '프렌즈팝 for kakao'가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출시된 프렌즈팝은 각종 앱장터 차트 상위권에 올라 이날 매출순위로 구글플레이에선 7위, 애플 앱스토어에선 1위를 차지했다. 인기게임 순위로도 양 스토어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용자들이 얼마나 자주 게임을 이용하는지 볼 수 있는 일활성이용자(DAU)의 경우 지난 8월25일은 약 20만명이었지만 지난 15일에는 무려 230여만명으로 10배 이상 뛰었다.

프렌즈팝은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해 아기자기한 아바타로 친근감을 살리고 남녀노소 쉽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방식이다. 3개 이상의 동일한 블록을 이어 맞추는 '쓰리매칭' 방식으로 특정 미션을 완수할 수 있다. 4개 이상의 퍼즐을 동시에 지우면 배치모양에 따라 특수 퍼즐 조각이 나타나는 데 2개가 만나면 수십개의 퍼즐이 한꺼번에 터지며 장관을 연출한다.

이 게임은 역할수행게임(RPG)과 전략게임에 비해 비즈니스 모델이 약해 신작이 순위에 오르기 힘들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인기 IP를 이용해 높은 성과를 내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프렌즈팝이 많이 알려진 카카오의 캐릭터를 쓰고 재미가 있어서 초기 사용자 수 확보에 성공했다. 20~30대 뿐만 아니라 40대 이상까지 사용자가 늘고 있다. 잔존율을 보면 기존 이용자는 계속 체류하고 있으면서 신규 유입자도 커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식"이라고 말했다.

프렌즈팝을 출퇴근 시간에 즐기는 회사원 김보배(여·30)씨는 "카카오가 진행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증정 이벤트가 마음에 들어서 게임에 몰두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정훈(25)씨도 "캐릭터가 친근하고 쉬운 게임 방식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빠져들게 된 거 같다"고 전했다.

정용제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검증된 IP를 활용하면 원작 콘텐츠의 깊이를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을뿐더러 인지도가 높은 IP를 활용하기 때문에 TV광고와 유사한 마케팅 효과를 발생시켜 일간사용자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내 모바일게임시장은 IP확보가 게임의 성공을 위한 경쟁력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인기 IP를 활용한 게임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부모님 스마트폰 도우미 'T효자손' 선봬

SKT, 자녀가 원격조정 가능

SK텔레콤은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의 스마트폰 화면을 원격으로 보면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화면 설정을 도울 수 있는 'T효자손'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이 자주 사용하는 연락처, 사진 갤러리, 알람, 진동·벨소리 설정 등 단말 설정 관련 기능과 모바일T월드, 카카오톡 등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에 가능하다.

모바일뱅킹을 포함해 금융결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앱 실행시에는 원격 공유 기능이 제한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국내 스마트폰 보급율이 약 80%에 육박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기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어르신들이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보다 편리하게 익힐 수 있도록 'T효자손'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부모용 T효자손 앱은 LG전자 폴더폰 '와인스마트재즈'와 '클래스'에 기본 탑재돼있다. 50~60대 이상 어르신 고객의 사용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갤럭시폴더3G, 갤럭시폴더 LTE등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9월 중 제공될 예정이다. 또 자녀용 앱은 2014년 이후 출시된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다. 고객은 T스토어에서 'T효자손' 자녀용 앱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정문경 기자

이동3사, 일제히 '애플워치' 판매 개시

오늘부터 전국 매장 구비
판매가 43만9000원부터

이동통신 3사가 23일 일제히 애플워치를 판매하기 시작한다. 판매가격은 가장 저렴한 제품이 43만9000원으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동일하다.

KT는 올레애비뉴 강남점과 M&S 성대입구점을 포함해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등 전국의 주요 매장 12곳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애플워치'와 '애플워치 스포츠' 두 가지 모델을 판매한다. 애플워치 스포츠는 골드와 로즈 골드 색상을 추가했다.

KT는 23일 애플워치를 구입하는 소비자 중 매장별로 선착순 5명에게 4만원 상당의 애플워치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을 무료 증정한다. 또 판매점 방문자에게는 아이폰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으로 애플워치 액세서리 할인 쿠폰을 준다.

SK텔레콤은 강남직영숍, 신촌직영숍, 종각 티월드 카페, 건국대 컨시어지, 영등포 직영숍 5곳에서 판매에 들어간다. 신규 모델로 애플워치 4종과 애플워치 스포츠 8종을 구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애플워치를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서울 강남직영점을 시작으로 서울 코엑스, 경기 분당, 울산, 대전 등 7개 매장을 23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애플워치 스포츠 신규모델 4종의 가격은 앤틱화이트(38㎜)와 라벤더(38㎜)가 43만9000원, 미드나잇블루(42㎜)와 스톤(42㎜)이 49만9000원이다. 애플워치 신규모델 4종은 블랙 38㎜와 42㎜가 각각 67만9000원, 73만9000원이고, 레드 38㎜가 67만9000원, 42㎜가 73만9000원이다. /정문경 기자

KT, 자라섬 '멤버십 재즈 페스티벌' 개최

KT는 경기도 가평균 자라섬에서 자사의 멤버십 고객을 위한 문화행사로 '올레 멤버십 VOYAGE to 자라섬'을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데이비드 샌본, 어쿠스틱 알케미, 티스퀘어 등 외국 뮤지션과 나윤선, JK 김동욱, 거미, 말로, 카이 등 국내 뮤지션들이 출연한다. 또 뮤지컬 '시카고' 빅밴드의 갈라쇼도 준비돼 있다.

KT 멤버십 고객은 올레닷컴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로 티켓 예매가 가능하다. 1일권은 5000포인트 차감, 2일권은 8000포인트 차감한다. 무료로 예매할 수 있고, 최대 3인까지 동일한 포인트로 동반 예매 가능하다.

KT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터파크를 통해 1일권은 사전예매 시 5만원, 2일권은 8만원이다. 65세 이상,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미취학 아동의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정문경 기자

SKT, 전통시장 배송도 앱으로 간편하게

서울 3곳 공동 배송체계 구축

SK텔레콤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늘 신영시장에서 '스마트 배송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 제공

전통시장의 불편사항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배송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 배송 서비스'가 본격 추진된다.

SK텔레콤은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에 위치한 신영시장과 화곡중앙골목시장, 목 3동 시장 등 3곳에서 ICT 활용한 '스마트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 배송 서비스는 전통시장 이용 고객이 구매 물품을 무인배송함(미유박스)에 집어넣고, 자체 내장돼 있는 터치스크린에 주소 등을 입력하고 배송을 신청하면 배송기사의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연결되는 방식이다.

또 고객이 상점에서 물건 구매후 배송을 요청하면, 상인은 '미유버튼(상인용 모바일앱)에 접속해 배송을 요청하고 배송기사에게 배송 요청이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정문경 기자

한국항공우주株, 사업 불안감 속 '오락가락'

미국으로부터 KF-X 핵심기술 이전받으려던 계획 무산
금투업계 "사업 불안감, 연내에 해소될 것… 성장 기대"

항공기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에 대한 엇갈린 전망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기술이전 불가' 방침에 따라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외부의 시선과 달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는 사업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항공우주는 전 거래일 대비 1.17%(1000원) 오른 8만64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KF-X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약세 출발한 한국항공우주는 장중 8만4100원까지 떨어졌지만 전문가들의 장밋빛 전망과 함께 장 막판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항공우주 주가는 올해 들어 155% 이상 상승해 지난달 11일 종가기준 10만1500원까지 치솟았다. 장중 한때는 10만6500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하지만 이후 사업 불안감 확산에 따라 상승분을 반납하고 박스권 등락을 거듭해 왔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해 9월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7조3400여억원에 들여오기로 하면서 에이사(AESA) 레이더와 비행 제어, 항공전자, 무장 등 관련 기술 25건을 이전받기로 합의했다.

에이사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보다 목표물 탐지 능력이 뛰어나고 전자전 능력까지 갖춘 최첨단 레이더다. 군 당국은 올해 말 체계개발 계약을 목표로 한국항공우주와 KF-X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25건 가운데 에이사 레이더, 적외선 추적장비, 전자광학 추적장비, 전자파 방해장비 등 핵심 기술 4건의 수출 승인(E/L)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KF-X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이 전투기 개발 핵심기술 이전을 거절한 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F-35 도입 과정에서 기술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KF-X 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는 미국의 도움 없이도 KF-X 사업에 문제가 없다며 맞대응했다.

방사청은 에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과 추적 장비는 유럽 등 제3국에 의한 기술협력 생산을 추진하고, 나머지 2건은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항공우주의 한 관계자는 "9조원에 달하는 큰 사업이다 보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고 사업 타당성 역시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면서 "기술이전 하나로 무산될 사업이 아니다. 최초 제안할 때는 항상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으로 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사이 금융투자업계에선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지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핵심기술 이전을 받지 못한 실망감으로 단기간 주가심리에 부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사업에 대한 불안감은 연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 국산화 방침과 대응사항에 정부의 발표를 통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KF-X 사업은 장기간 논쟁을 통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취소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되기 보다는 방사청의 플랜B를 중심으로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며 "개발비용의 증가, 개발기간의 연장 등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한국항공우주 입장에서 보면 개발비용이 곧 주사업자의 매출이기 때문에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신규 주가 상승 여력이 부재한 가운데 기존 성장스토리에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면서도 "시간이 필요할 뿐 정부와의 KF-X 사업 본계약은 결국 체결될 가능성이 높고 불확실성도 제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NH투자증권, 결식아동에 추석맞이 '선물KIT' 전달 NH투자증권 임직원과 밀알복지재단이 지난 21일 오후 여의도 본사에서 어린이 칫솔 세트, 색연필, 어린이 비타민, 한과, 참치캔 등 11가지 물품이 담긴 선물KIT 300개를 제작해 결식아동에 전달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제공

증권 마감시황

코스피, 금리인상 불확실성 딛고 회복세

코스피지수가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에 하락한 전날 분을 회복해 1980선을 넘어섰다.

22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38포인트(0.88%) 오른 1982.06로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027억원, 154억원씩 내던진 반면 기관이 1106억원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도 대부분 상승 마감했다. 전기가스업이 4.18% 급등했고 의료정밀(3.48%), 운수장비(2.99%), 등도 크게 올랐다. 반면 섬유의복(-1.08%), 전기전자(-0.36%), 철강금속(-0.33%) 등 3개 업종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상승 종목이 많았다. 현대차, 기아차 등이 3%대 상승했고 한국전력(4.85%), 현대모비스(5.06%) 등도 큰 폭 올랐다. 반면 삼성전자(-0.43%), 삼성물산(-1.90%), 삼성SDS(-1.93%) 등은 떨어졌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4.77포인트(0.69%) 상승한 693.67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이 89억원 순매도 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억원, 157억원어치씩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김보배 기자

중소형 증권사, 내달 유상증자 잇따를 듯

레버리지 비율 임계치 육박

10월 중 중소형 증권사들의 유상증자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KDB대우증권 정길원 연구원은 22일 "증권사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임계치인 1100%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대형사나 전문 증권사를 제외한 증권사들이 유상증자를 비롯한 자본 확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2011년 유상증자를 했던 대형증권사들 이외에는 레버리지 비율이 1000%를 상회하는 증권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재정건전성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총자본)이 1100%이상인 증권사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1300% 이상인 증권사에 대해선 '경영개선요구'를 내릴 예정이다.

정 연구원은 중소형 증권사들이 증자를 선택한다면 납입일까지 기간을 고려할 때 10월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한금융투자 등의 레버리지 비율이 100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증권사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한 것은 저금리 심화와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증가 등의 요인 때문이다.

그는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시행되면 이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 증권사들은 ISA계좌 전용 ELS를 설계해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3조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고 레버리지 비율에 여유가 있는 대형증권사 5개사에 대해서는 증자 우려가 없다"며 "삼성증권의 경우는 오히려 자사주 매입이 예상되고, 중개형 모델로 전문화된 키움증권 역시 증자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차기태 기자 folium@

신한금융투자, 年5.2% 수익추구 ELS 1종 공모

신한금융투자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1종을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ELS 11650호'는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구조의 3년 만기 상품이다. S&P500, EUROSTOXX50, NIKKEI225를 기초자산으로,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기준 가격의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익을 얻는 노낙인(No Knock In) 상품이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6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5.2%의 수익금과 원금이 상환된다. 만기상환 시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60%이상인 경우 원금 및 수익금(15.60%)이 상환되며 기초자산의 종가가 하나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60% 미만이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위 상품은 오는 23일부터 25일 오후 1시까지 판매하며,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상 10만원 단위로 신한금융투자 전국 각 지점 및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보배 기자

‘서민금융’ 국민행복기금, 과잉추심 논란

민간업체에 맡겨… 위탁수수료 1000억원 넘어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회사에 1000억원 이상의 위탁수수료를 지불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이후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지불한 위탁수수료는 1017억원에 달한다. 전체 회수 채권 4449억6900만원의 23%를 차지한다.

총 23개의 추심회사 가운데 100억원 이상 수수료를 지급받은 회사는 신한신용정보사가 1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신용정보 114억원, 나라신용정보 113억원 순이었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은 서민들로부터 채무조정신청을 접수받아 금융사에서 5~15% 수준으로 채권을 매입, 30~40%의 원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기금이지만 국가가 매입한 채권 추심을 다시 민간업체에게 맡기면서 과잉추심 논란까지 일고 있다.

현재 채권추심회사는 ‘회수성과’에 따른 실적제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부실채권을 넘긴 금융기관 역시 대부분 매각 후 회수실적에 따라 추가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 회수실적이 높을수록 추심회사와 금융기관의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인 것.

국민행복기금은 서민들의 채무 탕감과 신용 회복을 위해 지난 2013년 출범했다. 당시 강남구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을 비롯해 서민금융 기관장과 주요 금융 협회장 등이 표지석 제막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행복기금은 70세 이상 등 특수채무자를 제외한 신청자 전원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특수채무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추심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추심회사가 서민들에게 추심을 많이 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잉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은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담당해 과잉추심 배제, 수수료 비용 절감 등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2분기 제조대기업 매출 7.5% ↓

12년來 최대폭 감소 영업이익률은 상승

수출 부진과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2분기 제조 대기업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5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법인 기업 1만6000여곳 중 표본업체 306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특히 제조 대기업의 매출은 7.5% 감소해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체 대기업 매출액도 5.7% 줄어들어 2003년 3분기(-6.3%) 이후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매출액이 줄어든 것은 국제 유가 하락과 국내 기업의 기계·전기전자 수출 부진 등으로 수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의 매출액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2.0% 증가했다. 제조업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3% 하락해 비제조업(-1.3%)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이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15.9% 감소했고, 금속제품도 6.6% 하락했다. 기계·전기전자(-3.6%), 운송장비(-3.7%)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률은 5.6%로 지난해 2분기(4.8%)보다 높아졌다. 기업이 지난해 2분기에 1000원어치를 팔아 48원을 남겼다면 올해 1분기에는 56원의 이익을 남겨 수익성이 개선됐다.

매출액이 떨어졌는데도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것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차기태 기자 folium@

KB국민은행,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 KB국민은행이 추석명절을 맞아 22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왼쪽부터) 기아대책 홍보대사 김혜은, 이재석 인왕시장 상인회장, 윤종규 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제공

이란 가전업체, ISD 제기… 세번째 소송

우리나라 정부가 세 번째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에 휘말렸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란계 가전업체 엔텍합그룹은 지난 14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엔텍합 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과정에서 한국정부(자산관리공사)가 이란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 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엔텍합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2월 엔텍합이 중재 의향을 밝힌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렇지만 한 국가의 공공정책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과정에서 ‘독소조항’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차기태 기자

추석 명절 틈 탄 ARS 대출사기 주의보!

택배문자 가장 스미싱도 기승

추석을 앞두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신종 대출사기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 1~8월 피싱사기 피해 비중은 줄고 있지만 추석을 앞두고 대출사기 비중이 늘고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싱사기 피해자는 1월 2172명에서 8월 690명으로 줄어들었고 대출사기 피해자도 같은 기간 1917명에서 144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대출사기 피해자가 여전히 많고 피싱보다 도리어 많아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대출사기 상담건수는 추석 직전 2주간 하루평균 165건이 발생해 8월(152건)보다 7.8%, 7월(141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히 최근 대출사기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지난 7월 금감원이 ‘그놈 목소리’ 체험관을 개설한 뒤 사기범들은 ARS를 대출사기에 이용하고 있다. ARS 전화로 대출을 누르면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한 뒤 연결된 상담사가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수법이다.

이미 퇴출된 저축은행의 사이트를 사칭한 피싱사이트를 개설한 뒤 잔고증명, 전산조작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대출알선 문자를 보낸 뒤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명절을 앞두고 택배문자를 가장한 스미싱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택배문자 메시지는 링크된 주소나 앱을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실행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 응하면 안된다”며 “카카오톡이나 팩스로 신분증이나 통장사본을 제공하면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기범에게 속아서 송금했다면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연락해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차기태 기자

대한민국 No.1 **삼성**과 **LG**가 앞다투어 투자하는 곳!

160조 규모 사상 최대의 투자가 몰리는 **평택의 중심**

그 놀라운 미래가치를 독점하는

단 하나의 호텔!

비수기가 있는 관광지 호텔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365일 수요가 넘쳐나는 산업단지 바로 옆 특급 비즈니스 호텔!

성공투자 핵심포인트 6

- 고덕 삼성전자 산업단지 조성
- 진위산단 LG전자 30만평 확장
- 강남 18분대 KTX 지제역 개통
- 초대형 산업단지 완성·조성계획
- 전국 부동산 상승률 1위
- 세계 1위 호텔그룹 브랜드파워

모델하우스 9月 중 OPEN

SAMSUNG 삼성

LG

고덕 국제신도시

KTX 지제역

송탄역 도보 5분

송탄 시외버스터미널 도보 1분

삼성전자, 평택에 사상 최대 15兆 투자… '제2 반도체 신화' 쏜다

부동산 상승률1위 평택

실투자 수익률 연14%

세계 최대 호텔 브랜드 라마다

체인호텔 연계이용 혜택

※ 상기 이미지,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서울호텔

공무원 연금공단 서울지부

2호선 역삼역

2호선 선릉역

한국은행

평택라마다 호텔 홍보관

역삼동 719-1 번지, 나래빌딩 1층

평택의 중심에 평택 송탄 라마다가 옵니다.

대한민국 최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뜨거운 땅!

| 최입지 중심 | 삼성전자산업단지 인근에 위치 비즈니스 수요 풍부, 평택고덕국제신도시 바로 옆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 편리한 교통 | 송탄역에서 도보 5분거리, 송탄시외버스터미널 도보 1분거리로 편리한 대중교통이 확보된 쾌속교통망

| 메머드 상권 | 인근에 백화점과 복합여객터미널 등 메머드급 상업, 교통편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계속 확충 예정

| 초특급 시설 | 379 객실 규모 수도권 최고 수준의 특급호텔, 스카이풀장 등 서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부대시설 서비스

문의 02) 756-2000

※ 공휴일도 상담 가능합니다.

| 시행 | (주) 이한 D&C

| 시공 | (주)동우종합건설

| 신탁 | 아시아신탁

| PM·마케팅운영 |

추석 이후 재개발·재건축 4만가구 '우르르'

37곳서 4만1537가구 분양
전년 동기보다 3000가구↑
연말까지 청약열기 주도

추석 이후 전국 재개발 재건축 공급이 잇따를 예정이다.

22일 부동산114와 업계에 따르면 10월부터 연내 전국에서 공급예정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37곳, 4만1537가구에 달한다. 아직 일반 분양 물량이 결정되지 않은 단지를 제외하고도 일반 분양분만 1만2876가구에 이른다. 전년 동기 일반 분양 9655가구보다 3000여 가구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만2381가구, 대구·부산 등 영남권 8033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또 강원 춘천시가 1123가구의 재개발·재건축 물량을 내놓는다.

청약열기도 뜨겁다. 부동산114(대표 이구범)에 따르면 청약경쟁률 상위 '톱 5' 단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휩쓸었다. 이달 초 대구 우방타운1차 재건축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황금동'은 올해 최고인 평균 62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 광안맨션 재건축 '광안 더샵(379 대 1)' ▲해운대구 재개발 우동6구역 '해운대 자이2차'(364 대 1) ▲대연7구역 재개발 '대연 SK VIEW Hills'(300 대 1) ▲대구 신천3동 재건축 단지인 '동대구 반도유보라'(274 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연말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청약 열풍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10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51개 동, 전용면적 59~192㎡ 3658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109㎡ 9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삼성물산은 이어 같은 달 동대문구 전농·답십리뉴타운에 1009가구 규모의 '래미안 답십리 미드카운티'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580가구(전용 59~123㎡)가 일반 분양된다.

이외에도 같은 달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에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를 내놨다. 전용 59~109㎡ 2352가구로 구성되며 33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일반분양 336세대 중 270세대가 전용면적 59㎡의 소형 아파트로 공급된다.

11월에는 은평구 녹번동1-2구역 재개발 단지인 1305가구 규모의 '래미안 북한산 베라힐즈' 공급이 예정돼 있다. 전용 59·84㎡이며 이 중 33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경기도 안산과 안양, 인천 등에서도 공급 물량이 예정돼 있다.

롯데건설은 안산 초지동 군자주공5단지를 재건축한 '초지동 롯데캐슬'을 11월께 선보일 예정이다. 전체 469가구 중 일반분양분은 75가구다.

한양은 하반기 안양 만안구 안양2동 청원아파트 재건축 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419가구 중 일반분양은 188가구다. 인천에서는 두산건설이 10월경 인천 서구 가좌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가좌주공 두산위브(1757가구)'를 내놓는다.

대구와 부산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계획돼 있다.

대구에서는 대림산업이 11월 대구 중구 대신동에서 '대구 대신e편한세상' 468가구 중 328가구를 일반에 선보인다. 12월에는 화성산업이 중구 남산동 남산4-6지구 재건축 '남산역 화성파크드림'을 분양한다. 같은달 효성도 수성구에서 '대구범어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179가구(일반분양 46가구)를 공급한다.

부산에서는 10월 협성건설이 동구에 '수정 협성휴포레(788가구 중 일반 분양 731가구)'를 분양한다. GS건설은 12월께 연제구 거제1구역을 재개발한 '거제 자이(847가구)'를 선보인다.

창원에서는 한화건설이 10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2구역을 재건축하는 '창원대원 꿈에그린'(가칭)을 공급한다. 1530가구 중 80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다.

쌍용건설은 12월 마산 합포구 교방동 일대에 1538가구 규모의 '창원 마산 쌍용예가'(가칭)를 연내 공급한다. 일반 분양은 841가구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추석 이후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분양단지

지역	단지명	전용면적(㎡)	총 가구수	일반분양	시기	시공사
서울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59~192	3658	90	10월	삼성물산(주), 현대건설(주)
	래미안 답십리 미드카운티	59~123	1009	580	10월	삼성물산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59~109	2352	336	10월	삼성물산
	서울숲 리버뷰자이	59~141	1034	294	10월	GS건설
	마포자이 3차	59~119	927	436	10월	GS건설
	래미안 구의 파크스위트	59~145	854	506	10월	삼성물산
	송파 헬리오시티	39~130	9510	1550	10월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캐슬 흑석	59~110	545	222	10월	롯데건설
	래미안 이수역 로이파크	59~123	668	417	10월	삼성물산
	반포 센트럴푸르지오 써밋	59~133	751	201	10월	대우건설
	SK뷰 휘경2구역	59~110	900	369	10월	SK건설
	래미안 북한산 베라힐즈	59~84	1305	337	11월	삼성물산
	아크로리버뷰	59~84	595	41	11월	대림산업
	서초한양 래미안	49~150	829	257	11월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반포한양자이	59~153	606	152	11월	GS건설
	아이파크	미정	416	93	11월	현대산업개발
	청담 코오롱 하늘채	84	114	70	11월	코오롱글로벌
	힐스테이트 녹번	미정	958	265	12월	현대건설
	롯데캐슬 효창 5구역	38~110	396	215	12월	롯데건설
	효창 4구역 KCC	59~84	199	122	12월	KCC건설
	중구 말리동 한라	71~95	199	미정	12월	한라건설
	아이파크 망원 1구역	59~111	375	188	연내	현대산업개발
	은평 효성헤링턴플레이스	미정	384	254	연내	효성
경기도	초지동 롯데캐슬	59~110	469	75	11월	롯데건설
	힐스테이트 안산중앙	59~99	1152	658	12월	현대건설
	한양수자인	미정	419	188	12월	(주)한양
인천	인천 가좌 두산위브	미정	1757	미정	10월	두산건설

*자료 : 부동산114·각사 /더 피알 제공

강남구 땅값 10년새 157만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전국 최고가 자리매김
거제 '190%' 상승률 1위

서울 강남구의 최근 10년간 땅값이 157만원 올라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지역별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당 평균 땅값은 10년(2006~2015년) 새 2만6761원에서 4만5086원으로 1만8325원 올랐다.

226개 시·군·구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강남구로 이 기간 ㎡당 평균 357만6732원에서 514만8187원으로 157만1455원 상승했다.

이어 서울 용산구가 248만5029원에서 385만5808원으로 137만779원 올라 2위를 차지했고 중구가 500만3224원에서 635만4242원으로 135만1018원 상승해 3위를 기록했다.

땅값이 가장 적게 오른 곳은 경북 영양군으로 616원에서 984원으로 10년간 땅값이 368원 올랐다.

땅값 상승률은 경남 거제시가 1만3495원에서 3만9267원으로 190% 올라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는 2만5899원에서 7만3148원으로 182.4% 상승해 2위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은평구의 땅값이 68만3790원에서 123만508원으로 79.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에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로 169만752원에서 171만5957원으로 1.5% 오르는 데 그쳤다. /박상길 기자

수도권 아파트 '최고가' 갈아치운다

61개 시·구 중 16곳 이미 경신
44곳도 종전 최고 90% 넘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고가까지 올랐거나 최고 시세에 육박한 곳이 속출하고 있다.

22일 부동산114(대표 이구범)가 수도권 시·구별 3.3㎡당 시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61개 시·구(군 단위 제외) 가운데 72.1%인 44곳의 9월 현재 3.3㎡당 가격이 역대 최고가의 90%를 넘었다. 특히 전체의 26.2%인 16개 시·구는 현재 시세가 역대 최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전체 25개 구 가운데 17개 구의 3.3㎡당 현재 시세가 종전 최고가의 90%를 넘었다.

가을 이사철과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이주가 임박해 전세난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 시세를 알리는 전단지가 가득하다. /뉴시스

서울 강북구의 현 시세는 3.3㎡당 1107만원으로 전 최고점인 2008년 9월 1157만원의 96.7%까지 회복됐다. 강서구는 1444만원, 관악구 1323만원, 구로구 1225만원 등으로 역대 최고가의 94~95%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동작구는 현재 시세가 3.3㎡당 1501만원으로 직전 최고가인 2008년 8월의 1503만원과 2만원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했다. 금천구는 3.3㎡당 가격이 1034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인 2008년 9월 1035만원과 1만원 차이난다.

서울지역 4개구는 3.3㎡당 올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동대문구는 지난달 1283만원을 기록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마포 1737만원, 서대문 1234만원, 성동구 1693만원 등으로 현재 시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매 가격이 덜 올랐고 전세가는 높은 곳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상길 기자

"추석은 전통시장과 함께"

소상공인·소비자단체 등 골목상권·시장 이용 호소

22일 50여 개 소상공인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석명절 소상공인 업소 이용'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과 소비자 단체들이 추석 기간에 소상공인 업소를 이용하자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대표 오호석), 전국상인연합회(대표 진병호) 등 업종별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은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석명절 소상공인 업소 이용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업소를 이용해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갑봉 회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소상공인 이용에 소비자 단체들이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오호석 상임대표는 "소상공인들이 최근처럼 힘든 시기가 없었던 것 같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부인회 조태임 회장과 한국소비자파워센터 정부자 총재는 "소비자 단체가 앞장서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들의 이용이 늘도록 적극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추석 성수기에도 서울 시내 주요 전통시장은 한산한 모습이다. 중부시장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한 상인은 "손님이 3년전의 3분의 2도 안된다. 올해도 메르스 때문에 3개월 간은 장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추석 때라도 손님이 있어야 하는데 예전만 못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추석 이후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

서울상인연합회는 서울시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 기간 전통시장 내에서 각종 공연과 이벤트를 연다.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버스, 지하철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판매해 전통시장 이용에 앞장선다.

최치홍 서울상인연합회 사무처장은 "현재 협회에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각종 이벤트부터 온누리 상품권 대중화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정부에 전통시장 살리기 대책을 건의하고 있다. 다만 예산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직거래장터에서 추석 장 보세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22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추석맞이 한우 직거래장터'를 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저도수 소주 열풍에 음주량은 늘었다

도수 낮아 섭취량 증가 유통기한 표기도 없어

술 소비자 10명 중 4명이 저도수 소주를 접하며 음주량이 과거보다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소비자의 건강안전을 위해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도수 소주에 음주량↑, 특히 여성이 심해

한국소비자연맹은 2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회장 박태균)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주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7월 20대 이상 성인 남녀 270명(남 130명, 여 1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37.4%가 음주량이 늘었다고 밝혔다.

응답자중 23%(62명)는 저도수 소주를 마시면서 음주량이 '약간 늘었다'고 답했다. 14.4%(39%)는 '많이 늘었다'고 답변했다.

특히 여성은 42%가 '저도수 소주를 마신 뒤 음주량이 늘었다'고 답해 남성 34%보다 저도수 소주 열풍에 따른 음주량 증가가 뚜렷했다.

가장 흔히 받은 영향은 '(술값) 지출이 늘었다'(14.1%)였다. 이어 '다음날 숙취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12.2%), '음주 시간이 길어졌다'(8.2%), '술자리가 많아졌다'(5.9%) 순이다.

저도수 소주엔 소주의 주 원료인 주정이 일반 소주에 비해 덜 들어간다. 때문에 저도수 소주의 가격이 일반소주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 대상의 32.2%는 '저도수 소주 가격이 (일반소주보다) 싸야 한다'고 응답했다.

◆저도수 소주, 살균 효과 낮음에도 유통기한 표기 없어

이날 간담회에서는 저도수 소주의 유통기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모두 "저도수 소주에도 유통기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 목소리로 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설문조사에서도 71.8%가 '저도수 소주의 유통기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성현 기자

홈플러스 노조, 오늘 총파업 돌입

홈플러스(사장 도성환) 노동조합이 2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추석을 앞둔 상황이라 대규모 총파업에 홈플러스가 겪을 진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22일 노조 측에 따르면 2000여 명이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한다. 약 50여 개 점포에서 1500명 가량이 이날 출근을 거부하고 상경(上京)해 총파업 투쟁에 참석한다. 총파업은 오후 1시부터 MBK파트너스 사옥 앞에서 시작된다. 오후 3시에는 민주노총까지 참석할 예정이어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홈플러스 노조는 홈플러스의 인수사인 MBK에 고용안정·최저임금보장·향후 홈플러스 발전 방향을 두고 직접대화를 요구했으나 MBK측은 이를 거부해왔다. 이에 홈플러스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본격적인 총파업을 감행했다.

노조 측은 "MBK는 노동조합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매각과정에서 직원을 기만했던 홈플러스 경영진은 직원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신임 대주주와 경영진이 노사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홈플러스를 만들 의지가 없다면 투쟁을 통해 새로운 홈플러스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달려요

롯데그룹 '슈퍼블루 마라톤'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회장 나경원)와 함께 내달 24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제1회 슈퍼블루 마라톤'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슈퍼블루 마라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마라톤으로 롯데그룹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함께 진행 중인 '슈퍼블루 캠페인'의 연장이다.

이번 마라톤 대회 코스는 두 곳으로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을 출발해 천호대교를 돌아오는 10km코스와 같은 장소에서 출발해 청담대교를 돌아오는 5km코스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완주 메달이 수여되고 10km 코스 참가자들은 자신의 기록이 측정된 기록증을 받는다.

슈퍼블루 마라톤 참가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www.superbluemarathon.com)에서 할 수 있다. 일반 참가비는 1만원이며 장애인과 중고생은 무료다.

임직원 참여형 '상상펀드 기부마켓' 오픈

KT&G, 해피빈과 협력

KT&G는 네이버 기부포털 '해피빈'과 협력해 간단한 클릭만으로 임직원들이 기부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상상펀드 기부마켓' 사이트를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KT&G는 해피빈으로부터 사연을 제공받아 사내망에 개설한 기부마켓 사이트에 게시하고, 임직원들이 원하는 사연을 선택하면 클릭 당 1만원을 적립해 기부처에 전달한다. 해피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동방사회복지회 등 사회복지단체 20곳으로부터 사연을 접수받아 매달 10개의 사연을 선정해 KT&G에 제공한다.

재원은 KT&G 임직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기부한 금액에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해 조성하는 '상상펀드'에서 마련된다.

KT&G 관계자는 "기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기부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문화 조성을 통해 임직원들의 참여의식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업 '패션 코칭' 서비스 시작

삼성물산 패션부문 '젠틀맨 컴퍼니 프로젝트'

삼성물산 패션부문(대표 윤주화)은 전문적인 패션 코칭 서비스인 '젠틀맨 컴퍼니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젠틀맨 컴퍼니 프로젝트는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전략적 옷차림을 필요로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 이미지 컨설팅을 해주고 직원들에게 회사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류 착장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B2B 영업팀을 신설하고 올림픽과 월드컵 국가대표 단복을 제작했던 디자이너와 상품기획·영업·스타일링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을 꾸렸다.

이들은 고객사를 직접 찾아 의류 컨설팅과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문자 사과' 선보여 22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복(福)자가 새겨진 문자 사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문자 사과세트는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으로 둘러싸인 청정 산간지역에서 자란 사과로, 6만5000원이다. /홈플러스 제공

'비비고 한식반찬' 누적매출 300억 돌파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은 비비고 한식반찬의 올해 누적 매출이 지난 18일 기준으로 300억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한해 전체 매출인 28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비비고 한식반찬의 누적 판매량은 지난해 출시 약 600만개로, 우리나라 가구 수가 총 1800만이라고 봤을때 3가구당 1가구가 구매한 셈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많이 팔리는데 지난해 설과 추석 매출은 각각 20억원과 43억원이었고 올해 설 매출은 59억원이었다.

대상, 5억원 상당 건강기능식품 기부

대상(대표 명형섭)이 추석을 맞아 관절과 뼈 건강이 좋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5억원 상당의 대상웰라이프 건강기능식품을 기부했다.

대상은 지난 21일 서울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나경호 대상 웰라이프 사업부장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구훈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오리온, 美 식품위생 감사서 최상위 점수 획득

오리온(사장 이경재)이 미국 식품위생 감사 기관인 미국 제빵협회(AIB :American Institute of Baking)가 실시하는 감사에서 국내외 12개 공장 모두 최상위 점수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AIB는 세계 식품 시장 평가 기관 중 하나다.

맥도날드, 펩시 등 글로벌 5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위생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조시설 환경, 개인 위생 등을 평가한다.

네파, 신개념 경량 다운 '스파이더 재킷' 선봬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대표 박창근)는 신체 부위별 최적화된 소재 적용을 통해 보온성과 활동성을 강화한 신개념 경량 다운 '스파이더 재킷'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품에는 네파의 바디맵핑 기술이 적용됐다.

상대적으로 추위를 많이 느끼는 몸판은 보온성이 높은 다운 소재를 사용하고 움직임이 많은 팔과 옆면 부분은 신축성이 좋은 소재로 제작했다.

해태제과, 만두 속에 밥있는 '밥만두' 2종 출시

해태제과(대표 신정훈)는 만두 속에 밥이 들어 있는 이색 제품 2종을 22일 출시했다.

새롭게 출시된 제품은 '버섯잡채만두'와 '아삭버터김치밥만두' 2종으로 만두 속에 밥이 들어있는 게 특징이다. 밥만두에 들어 있는 밥은 만두 전체의 약 3분의 1수준으로 이는 해태제과가 사전테스트를 거쳐 결정한 최적의 비율이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조리시간은 컵라면과 비슷한 3분이다.

CJ "글로벌외식 탑10 도약"

인천국제공항 '비비고' 등 12개 토종 브랜드 개점

2020년 해외 매장 3600개 글로벌 매출 비중 44% 목표

CJ푸드빌이 인천국제공항에 자체 개발한 브랜드 12개를 모두 개점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사진은 '비비고' 매장 모습. /CJ푸드빌 제공

CJ푸드빌(대표 정문목)이 2020년까지 '글로벌 외식 탑 10기업'으로 도약해 '한국 식문화의 세계화'를 이루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CJ푸드빌은 22일 인천국제공항 1, 3층 사업권역에 자체 개발한 직영 브랜드 12개를 개점하고 글로벌 사업 제2의 도약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CJ푸드빌은 인천국제공항 식음시설을 국내와 해외를 잇는 '글로벌 진출 연결고리'로 삼아 2020년까지 해외 15개국으로 진출한다는 목표다. 해외 운영 매장 수는 최대 3600개로 15배 이상 개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매출을 전체의 절반 수준(44%)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CJ푸드빌은 1997년 '빕스', '뚜레쥬르'를 시작으로 글로벌 한식 브랜드 '비비고', '계절밥상' 등의 국내 독자 브랜드를 개발했다. 2004년 미국 뚜레쥬르 진출을 시작으로 해외사업을 확장해 왔다. 뚜레쥬르, 비비고, 투썸, 빕스 등 4개 브랜드가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에 진출했으며 230여 개의 해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는 해외 매장의 40%가 넘는 102개의 CJ푸드빌 매장이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는 뚜레쥬르와 비비고가 현지인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CJ푸드빌의 인천공항 입점 의미는 매우 크다. 국내-공항-해외로 이어지는 '글로벌 진출 연결고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이다.

CJ푸드빌은 앞으로 7년간 운영하게 될 인천공항이 CJ푸드빌 브랜드를 자연스레 인지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공항은 외국인 이용객 비율이 36%로 지난해에만 4500만명이 다녀갔다.

CJ푸드빌 글로벌사업담당 김찬호 이사는 "인도네시아 외식업체 한 임원은 자카르타에서 프리미엄 베이커리 뚜레쥬르만 알고 있었지만 비비고, 빕스, 투썸 등 공항내 특화 매장을 보며 현지 입점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며 "중국, 일본, 미국 등 한국을 방문하는 바이어들이 입국 후 당사 브랜드를 공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CJ푸드빌은 인천공항 식음시설을 교두보로 중국, 동남아, 미국 등 거점 중심 확산 전략을 통해 맥도날드, 스타벅스, 얌(Yum) 등 세계적인 외식기업과 어깨를 견주는 '글로벌 외식 톱(TOP) 10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에 우리가 직접 개발한 국내 토종 브랜드 12개가 문을 열어 대단히 감격스럽다"며 "전 세계인들이 매월 1~2번 한국 음식을 먹는 '한국 식문화 세계화'의 꿈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국내 최초 양주 '캡틴큐' 35년만에 생산 중단

고급·다양화로 시장성 낮아

국내 최초의 양주 '캡틴큐'가 출시 35년 만에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될 전망이다.

22일 롯데주류는 캡틴큐를 현재 남아있는 제조용 주정 2500ℓ, 9000병 생산 분량이 모두 소진되면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캡틴큐는 저렴한 가격으로 1980년대부터 인기를 끌었던 럼주로 지금까지 2000억원어치 이상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0년 들어 양주 시장이 고급화되면서 시장성이 떨어지고 이 술로 가짜 양주를 만든 일당이 잡히는 등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으면서 가짜 양주 베이스라는 오명을 썼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캡틴큐가 출시됐던 당시에는 저가양주 시장이 있었지만 현재는 양주도 고급화되고 다양화되는 추세 속에 시장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 지난 7월 캡틴큐로 가짜 양주를 만드는 등 사건이 벌어지면서 더 이상 주류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토니모리, 中 왓슨스 2000여 매장 입점

토니모리(회장 배해동)가 지난 17일 중국 왓슨스 2000여개의 매장에 입점했다고 22일 밝혔다.

입점 제품은 중국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매직 푸드 바나나 핸드크림, 딜라이트 달콤 바나나 퐁당 립밤, 피치 핸드 크림, 미니 피치 립밤 등이다.

이번 중국 왓슨스 매장 입점은 토니모리가 중국 시장 공략의 가속화를 의미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토니모리가 중국 내 최다 유통 채널 중 하나인 왓슨스에 입점하게 되면서 K뷰티를 주로 구매하는 중국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중국인 "롯데면세점 최고"

韓 브랜드 선호도 조사
中 소비자 19만명 참여
6만8000표 획득 '1위'

중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연합뉴스

롯데면세점(대표 이홍균)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대한민국 브랜드로 선정됐다.

21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중국 언론사인 '인민일보'와 한국소비자 포럼이 공동 조사한 '중국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1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인민일보 인터넷 뉴스사이트 '인민망'을 통해 진행됐다. 15세 이상 중국 소비자 총 19만명이 참여했으며 롯데면세점은 6만8000표를 획득했다.

중국 소비자가 선택한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는 인민일보가 중국 수출 현황과 1년간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190여 개 후보 브랜드를 선정한 이후 중국 소비자들의 직접 투표를 거쳤다. 시상식은 내달 6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이 같은 중국 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유커(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15일 산동성 제남시와 MOU를 맺고, 산동선 청도·연태·위해·제남 지역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해 산동성에서 방한한 관광객 중 롯데면세점을 방문한 중국인은 20만명이다.

롯데면세점 측은 이번 MOU를 통해 내년에는 30만명 이상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는 "중국 소비자들이 롯데면세점을 한국 대표 브랜드로 선택한 것은 롯데면세점의 서비스 등에 좋은 경험을 느낀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매력을 중국인에게 알리는데 더욱 노력해 경제 활성화와 국내 관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65세 이상 여성 암발병 1위 '대장암'

女 발병률 매년 4.3% 늘어
조기발견 늦어 생존률 낮아

이대목동병원 김광호 교수
"대장 내시경, 조기치료 가능
50세 이상 정기 검진 권장"

대장암은 국내 남성암 발생 2위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대장암 발병 추이를 보면 한국 여성도 대장암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통계청(2015년)의 보고에 따르면 대장암은 65세 이상 노령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의 1999~2012년 사이 암 발생 통계에 의하면 여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해마다 4.3%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 협진센터장 김광호(사진) 교수는 "국내 여성의 대장암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들에게 발병하는 암 중에서는 3위, 65세 이상 노령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남성에 비해 대장암의 조기발견이 늦고 상대 생존율이 낮아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대장암의 예방과 조기 검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9월은 '대장앎의 달'이지만 대장암이 성별에 따라 발생률에 차이가 있는 '남녀유별'한 암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10만명당 대장암 발병률은 58.7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대장암은 흔히 남성에게서 발병하는 암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대장암이 적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령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실제 2012년 암등록통계의 65세 이상 고령군에서 암 발생 순위를 살펴보면 남성은 대장암이 3위인데 반해 여성은 대장암이 1위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장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의 경우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의 1993~2012년의 대장암의 성별 상대생존율 자료를 살펴보면, 5년 생존율의 경우 여성은 65.9%, 남성은 70.5%로 4.6%나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장암은 '남성암'이라는 인식 때문에 대장암 검진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병이 진전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김광호 교수는 "대장 내시경은 대장 내부를 관찰하고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이 있으면 용종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조직 검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뿐 아니라 치료까지 가능한 검사 방법"이라며 "만 50세 이상 대장암 위험군이라면 다소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대장 내시경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 교수는 "대장암은 식생활의 영향이 큰 만큼 평소 육류 대신 섬유질 위주의 식단으로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 또 여성의 경우 흡연 여성이 비흡연 여성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약 20% 높은 만큼 금연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좋다"고 강조했다.

/최치선 기자

동해안 자전거길. /한국관광공사 제공

맛따라 멋따라 달리는 두바퀴 여행

한국관광공사
경관·문화·미식 등 평가
자전거여행 30코스 선정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국내 자전거길의 아름다운 매력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전국의 자전거길 중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개 코스를 선정했다.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선정을 위해 지자체와 전문가로부터 100여개의 자전거길을 추천받았다. 또 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연·환경, 인프라, 관광자원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30개 코스를 정리했다. 그밖에 현장점검과 여행기 제작을 위해 자전거 여행 작가와 함께 현장 취재를 실시했다.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ajagil.or.kr)를 통해 제공하며 홈페이지에는 자전거길 소개, 지도정보는 물론 자전거 여행 작가가 작성한 생생 여행기, 여행 TIP 등이 담겨 있다.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홍보를 위해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Best5 선정 이벤트,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벤트 등의 온라인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며 국민들이 직접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을 달려보는 체험행사 이벤트를 10월부터 3회 실시할 예정이다. 각 이벤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관광공사 이상기 레저스포츠관광팀장은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은 단순한 라이딩만을 위한 자전거길이 아닌 주변 경관, 문화, 미식 등 관광 콘텐츠들이 풍부한 '자전거 여행길'이다. 이를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국내 자전거길의 인지도 제고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장애인복지시설 봉사활동. /안전보건공단 제공

한가위 맞아 장애아동과 사랑 나눔

안전보건공단
복지시설서 청소 등 봉사활동

안전보건공단 노·사(이사장 이영순, 노동조합 위원장 김인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일 장애인 복지시설인 혜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울산 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혜진원을 찾은 안전보건공단 노·사는 지적장애 및 지체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배식과 함께 식사활동을 돕고, 점심을 함께한 후 설거지와 청소활동 등을 실시했다.

혜진원은 장애아동의 생활훈련과 교육, 의료재활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 적응을 돕는 재활 전문시설이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주변 이웃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울산에 본부가 있는 안전보건공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임을밝혔다.

/최치선 기자

star bag

차기작은 '공조'

배우 **현빈**의 차기작이 결정됐다. 소속사 오앤엔터테인먼트는 22일 "현빈이 차기작으로 윤제균 감독이 제작하는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공조' 출연을 확정지었다"고 전했다. 내년 초 크랭크인 예정이다.

싱글 '어깨' 공개

씨스타 **소유**와 십센치 **권정열**이 싱글 '어깨'를 22일 정오 공개했다. 서정적인 멜로디와 따뜻한 노랫말이 인상적인 어쿠스틱 곡이다. 주위에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을 위한 노래다.

1년 만의 새 싱글

가수 **전인권**이 1년 만에 새 싱글 '너와 나'를 23일 발표한다. 카카오뮤직 스타뮤직룸으로 팬과 만나면서 느낀 감사로 준비한 곡이다. 전인권은 "여러분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와 힘이 됐다"고 전했다.

정규 1집 '랜드' 발표

밴드 **라이프앤타임**이 정규 1집 음반 '랜드(LAND)'를 22일 발표했다. 라이프앤타임은 '삶과 시간에 대해 노래한다'는 의미의 밴드다. 다음 달 열리는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에도 출연한다.

글로벌 DJ 도전

가수 **서인영**이 21일 첫 방송된 SBS MTV '매쉬업'을 통해 글로벌 DJ에 도전한다. 서인영은 소속사를 통해 "진정한 DJ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맑고 순수한 영광, 저와 닮았어요

영화 '서부전선' 여진구

언젠가부터 여진구(18)는 소년과 청년의 경계에 서있다. 선악의 갈림길에서 괴물을 삼켜야 하는 아이였고, 심장이 뜨거워질 때 질주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청년이었다. 10대의 마지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여진구는 전쟁터에 남겨진 소년으로 다시 우리 곁을 찾아왔다. 24일 개봉하는 영화 '서부전선'(감독 천성일)이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서부전선'은 한국군 졸병 남복(설경구)과 북한군 졸병 영광(여진구)의 이야기를 그린다. 비밀문서를 지켜야 하는 남복과 탱크를 지켜야 하는 영광의 뜻하지 않은 동행을 통해 전쟁의 비극을 웃음과 슬픔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여진구는 실제 자신의 성격과 비슷한 영광에게 제일 먼저 끌렸다. 맑고 순수한 열여덟 제 또래 소년이 전쟁에 혼자 남겨진 모습이 좋았다.

그러나 여진구가 '서부전선'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캐릭터 때문만은 아니었다. 처음 도전하는 전쟁영화라는 점, 그리고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와 정서가 마음을 움직였다. "한국전쟁은 민족의 상처를 건드리는 이야기라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부전선'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쟁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고 인간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죠. 아이러니함이 재미있게 다가왔어요."

전쟁영화 속 따뜻함에 매료
즉흥적 연기에 짜릿함 느껴

10대 마지막 아쉽고 그리워
스무 살? 두렵지만 설레요

이번 영화에서 여진구는 연기적으로 큰 변화를 시도했다. 캐릭터의 감정을 미리 고민하는 것이 아닌, 현장 상황에 맞춰 즉흥적으로 연기하는 것이었다. 전쟁영화인만큼 현장감을 살리고 싶어서였다. 동물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감정 표현을 거칠고 과장되게 하기도 했다. 영화 초반 영광이 남복과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에서는 짜릿함도 느꼈다.

10대로서는 쉽게 소화하기 힘든 연기도 있었다. 음주와 흡연 연기다.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여진구는 오로지 배우로서 작품에 충실하고자 했다. "자연스럽게 보이는 걸 떠나 영화 속 인물이 있는 그대로 보였으면 했다"는 말이 이를 잘 보여준다.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를 시작으로 여진구는 스크린 속에서 또래 배우들보다 조금 더 힘들고 무거운 감정을 소화해왔다. 10대가 표현하기에는 다소 어두운 캐릭터였다. 자신에게 왜 이런 작품들이 주어지는지 고민해봤을 법도 하다. 여진구는 "나와 다른 성격의 캐릭터라 호기심이 들었고 끌렸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감독님들이 저에게 이런 작품을 제안해주신 것 또한 모험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다"고도 했다.

지금의 여진구를 있게 한 것은 어리지만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 때문이다.

물론 여진구는 스크린을 벗어나면 또래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10대 소년이다. 그는 "이제 곧 떠나야 하는 학교와 다시 입지 못할 교복이 아쉽고 그립다"고 말했다. 스무 살을 앞둔 지금, 여진구는 기대와 두려움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성인이 되면 수많은 감정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경험이 불어 닥칠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스무 살이 되는 첫 날 가장 하고 싶은 거요? 치킨이랑 맥주를 먹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꼭 CC(캠퍼스 커플)를 할 거예요(웃음)."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이병헌·조승우·백윤식, 11월 극장서 만난다

'내부자들' 개봉 확정… 윤태호 작가 미완결 웹툰 원작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주연의 영화 '내부자들'(감독 우민호)이 오는 11월 개봉을 확정했다.

'내부자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내부자들의 의리와 배신을 담은 범죄 드라마다. '이끼' '미생'의 윤태호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안으로 한 작품이다. 윤태호 작가의 웹툰은 2012년 한겨레 오피니언 훅을 통해 연재됐으나 돌연 제작을 중단, 현재까지 미완결로 남아 있다.

이병헌은 대기업 회장과 정치인에게 이용당하다 폐인이 된 정치깡패 안상구 역을 맡았다. 치밀한 계획으로 복수를 꿈꾸는 인물이다. 조승우는 빽도 족보도 없이 근성 하나 믿고 조직에서 버텨온 열혈 검사 우장훈 역으로 호흡을 맞췄다. 3년 만에 정식 스크린 복귀다. 백윤식은 국내 유력 보수지 정치부 부장을 거친 현역 최고 논설 주간 이강희 역으로 출연한다. 정치인·재벌·조폭을 연결시켜주는 인물로 무게감 있는 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연출은 '파괴된 사나이' '간첩'을 만든 우민호 감독이 맡았다.

/장병호 기자

FashionN
9월 24일 목요일 밤 9시 첫방송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6
더 강력해진
그녀들이 온다!
지나 / 아이비 / 황승언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view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EDM의 소리, 흥미로워… 미래 밝다"

디스코 거장 조르지오 모로더

88년 '손에 손잡고' 작곡가
30년 만에 정규앨범 발표
과거와 현재 조화에 초점
최근 EDM장르도 관심 커

조르지오 모로더(75)는 70~80년대 유행한 디스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뮤지션이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70년대부터 활동해온 그는 '디스코의 거장'으로 불린다. 신시사이저를 활용한 혁신적인 음악으로 일렉트로닉 장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국내에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주제곡인 '손에 손잡고'의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한 일렉트로닉 듀오 다프트 펑크는 '조르지오 바이 모로더(Giorgio by Moroder)'라는 곡으로 거장에게 헌사한 바 있다.

지난 7월 조르지오 모로더는 30년 만의 새 앨범 '데자 부(Deja Vu)'를 발표했다. 시아, 브리트니 스피어스, 카일리 미노그 등 당대

의 슈퍼스타들이 거장의 음반에 함께했다. 30년의 공백을 깨고 나온 앨범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선한 감각의 팝과 댄스가 어우러진 앨범이다.

최근 이메일 인터뷰로 만난 조르지오 모로더는 다프트 펑크와의 작업이 새 앨범 작업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털어놨다. 새 앨범에 대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조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항상 음악을 통해 새로운 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한다"며 "어떻게 하면 레트로풍의 디스코 사운드를 현대적인 소리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소리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일렉트로닉 뮤직의 초창기부터 활동해온 만큼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장르에 대한 관심도 크다. 조르지오 모로더는 "요즘 젊은 EDM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무척 흥미롭고 좋다"고 말했다. 또한 "EDM의 미래는 밝다"고도 했다.

7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지만 여전히 새로운 음악을 향한 열망이 크다. 조르지오 모로더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신선한 음악을 할 수 있는 비결로는 "전설"이라는 농담 섞인 대답을 했다.

"새롭고 신선한 음악을 할 수 있는 비결이요? 저는 전설이니까요. 물론 농담입니다(웃음).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좋은 매니지먼트와 좋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니까요. 그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계략에 빠지는 객주 일행

◆ KBS2 '장사의 신-객주2015'

오후 10시

개성 '천가객주'의 객주인 천오수(김승수)는 의형 길상문(이원종) 행수와 함께 청나라와의 국경무역을 위해 말린 해삼(흑충)을 싣고 책문으로 향한다. 어린 봉삼과 소례, 길소개까지 동행한 그 원행길엔 천가객주의 사활이 걸려있었다. 그러나 길행수는 이 길이 불운할 것임을 알고 있다. 환전객주 김학준이 책

문에서 천가객주를 위기로 몰고 갈 계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 tvN '수요미식회'

오후 9시40분

밥상의 주인이지만 평소 그냥 먹던 '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연예계 대표 미식가 남희석과 반전 입맛의 소유자 EXID의 솔지가 밥에 얽힌 비화를 공개한다.

◆ KBS2 '내편, 남편'

오후 8시55분

아내의 목소리로 아침을 시작한 미국 남편 리 스매더스는 고대하던 휴일을 대청소의 날로 맞이한다. 휴일을 방해 받아 뿔난 그는 운전 연수로 복수를 꿈꾼다.

◆ O tvN '비밀독서단'

오후 8시

사랑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해결책을 전달한다. 심리서부터 연애 실전팁까지 책에서 답을 구하는 '비밀독서단'의 연애비법서 A to Z가 공개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3일(수)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FOODTV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중계방송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부탁해요, 엄마 (재)	05:00 MBC 뉴스 05:1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스페셜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노동개혁, 여야 특위위원장에게 듣는다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00 중계방송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노동개혁 입법 과제 해법	06:0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재) 07:00 이야기 보따리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김제동의 톡투유 (재) 10:2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1:45 비정상회담 대표들이 뽑은 히든 싱어 시즌3 베스트 (재)	05:50 휴먼다큐 사노라면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알토란 (재) 11:5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05:00 코미디 빅리그(재) 06:00 명단공개 (재) 06:4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8:20 집밥 백선생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집밥 백선생 (재) 11:5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05:00 레시피 공작소 05:30 루이의 니하오 키친 06:30 나를 바꾸는 30분 07:00 찾아라! 팔도 맛지도 07:30 열정식당 (재) 08:00 최현석의 크레이지타임 (재) 08:30 그곳에 그집 09:00 푸드 헌터 09:30 알뜰 장보기 정보 (재) 10:00 세기의 기행 판소리의 맛과 멋 11:00 명물인생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여기는 세계 유기농산업엑스포 현장입니다 15:00 우리말 겨루기 (재) 16:00 오늘의 경제 16:10 이웃집 찰스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3:00 다큐멘터리 3일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비타민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그녀는 예뻤다 (재) 13:30 키즈 사이언스 5 (재) 14:05 리얼스토리 눈 (재) 14:30 똑?똑! 키즈스쿨 15:00 MBC 뉴스 15:10 마법천자문 15:4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오!마이 베이비 (재) 14:00 영재발굴단 (재) 15:00 SBS 뉴스 15:10 SBS 이슈 인사이드 16:00 꾸러기 탐구생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1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3:1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4:30 현장토크쇼 TAXI (재) 15:40 두번째 스무살 (재) 17:00 두번째 스무살 (재)	12:30 식신로드 시즌2 (재) 13:30 스타 뉴스 14:30 한국의 맛 시즌2 15:00 세기의 기행 판소리의 맛과 멋 16:00 필로교수의 쿠킹콘서트 한우예찬 (재) 17:00 활력 충전 건강이 보인다 (재) 17:30 알뜰 장보기 정보 (재)
18:00 6시 내고향 18: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9:00 KBS 뉴스 7 19:30 사람과 사람들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시사기획 창 23:00 KBS 뉴스라인 23: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24:50 동행 (재)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다 잘될 거야 20:30 생생정보 20: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22:00 장사의 신 – 객주 2015(1회) 23:10 추적 60분 24:10 스포츠 하이라이트 24:35 세상의 모든 다큐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그녀는 예뻤다 23:10 라디오스타 24:30 MBC 뉴스 24 24: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영재발굴단 22:00 용팔이 23:15 한밤의 TV연예 24:35 나이트라인	18:20 비정상회담 (재) 19:40 연금복권 520 19:55 JTBC 뉴스룸 21:30 유자식상팔자 22:50 연쇄쇼핑가족 24:15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엄지의 제왕 (재) 21:50 나는 자연인이다 2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4:2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8:20 집밥 백선생 (재) 19:20 고성국의 빨간 의자 20:40 코미디 빅리그 (재) 21:40 수요미식회 23:00 비밀독서단 (재) 24:20 집밥 백선생 (재)	18:00 Mystery Dinners (재) 19:00 집밥의 여왕 20:30 최현석의 크레이지타임 (재) 21:00 Roadtrip With G.Garvin 21:30 Outrageous Food 22:00 Chopped Canada 23:00 오감도 (재) 24:00 식신로드 시즌2 (재)

'117억 보너스' 누가 거머쥘까

25일, PGA투어 PO최종전 개막 순위별 점수 재조정… 역전 가능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4-2015 시즌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이 미국 조지아주 이스트 레이크 골프클럽(파70·7307야드)에서 25일(한국시간)에 열린다.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한 선수는 플레이오프 1차전 바클레이스부터 3차전 BMW챔피언십까지 격전을 치른 끝에 30명으로 좁혀졌다. 투어 챔피언십을 포함, 4차례 대회에서 가장 높은 페덱스컵 랭킹을 쌓은 선수에게는 1000만 달러(약 117억원)의 보너스 상금이 주어진다.

제이슨 데이

배상문

이번 대회가 더욱 흥미를 끄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페덱스컵 랭킹은 그대로지만 순위별 점수가 재조정돼 1위부터 30위까지 점수 차가 좁혀졌다는 것이다. 최하위인 30위로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하더라도 상위 선수들이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30위 선수가 우승한다면 1000만 달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페덱스컵 랭킹 1~5위의 선수들은 우승만 하면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최종 승자가 된다. 우승하지 못하더라도 톱10 이내에만 들면 다른 선수들의 결과에 따라 트로피를 들 가능성도 있다.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한 선수는 페덱스컵 랭킹 1위 제이슨 데이(호주)다. 데이는 플레이오프 3개 대회에서 이미 2승을 거둬 최종전에서 5위 안에만 들어도 우승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올 시즌 두 차례 메이저대회 제패를 포함해 4승을 거둔 조던 스피스(미국)는 페덱스컵 랭킹 2위로 밀렸지만 우승 한번이면 데이를 제칠 수 있다. 또한 페덱스컵 랭킹 3위 리키 파울러(미국), 4위 헨리크 스텐손(스웨덴), 5위 버바 왓슨(미국)까지 자력 우승이 가능하다.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최종전에 진출한 배상문(29)도 희박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페덱스컵 랭킹 28위로 무조건 우승을 한 뒤 1위 선수가 25위 밖으로 밀려나는 등 상위 랭커들이 부진할 때 플레이오프 승자가 될 수 있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강정호, 시즌 공식마감

60일짜리 부상자명단 등재

불의의 부상을 한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공식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22일(한국시간) 미국 스포츠 언론인 ESPN은 강정호의 이름이 60일짜리 부상자명단(DL)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피츠버그는 빈자리를 트리플A의 외야수 유망주 키언 브록스턴으로 채웠다.

강정호는 한국프로야구 출신 1호 메이저리그 야수다. 올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126경기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 60득점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1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 유격수로 출전, 병살 상황을 처리하다가 왼 무릎을 다쳐 수술대에 올랐고 시즌을 조기에 마감했다.

피츠버그는 강정호가 6~8개월 재활을 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희철 기자

박태환, 일본서 올 연말까지 훈련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수영 스타 박태환(26)이 일본에서 훈련을 이어간다.

박태환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팀GMP는 22일 "박태환이 전날 오후 매니저, 체력담당 트레이너와 함께 일본 도쿄로 떠났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도쿄 명문 사립대인 호세이대에서 24일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이 대학 수영팀과 함께 훈련할 계획이다.

호세이대는 박태환이 2007년 여름에 한달 가량 훈련하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꿈을 키웠던 곳이다. 현재 단국대 대학원생인 박태환은 단국대와 호세이대가 자매결연을 맺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다시 훈련할 수 있게 됐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3일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FINA로부터 선수자격정지 18개월과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은1, 동5) 박탈 등의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은 금지약물인 줄 몰랐다며 병원 측 부주의를 주장했다. 해당 병원장은 검찰 기소로 현재 재판 중이다. /하희철 기자

태권도, 난민에 손 내밀다

난민어린이 위한 태권도박애재단 설립

세계태권도연맹(WTF)이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른 난민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탠다.

조정원 WTF 총재(사진)는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15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전 세계 난민촌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태권도박애재단'(Taekwondo Humanitarian Foundation) 설립 계획을 밝혔다.

조 총재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말처럼 스포츠와 올림픽 운동은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 도움을 주는 구실을 해야 한다"며 "태권도박애재단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WTF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WTF의 스위스 로잔 사무국에 태권도박애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가능하면 올해 안에 처음으로 난민을 대상으로 태권도 사범과 의료 봉사단원을 파견할 계획이다. 난민촌 관련 봉사재단 설립 프로젝트는 국제스포츠연맹 중에서는 WTF가 처음이다. WTF는 이미 2008년 여름 태권도평화봉사단을 출범시켜 약 100여 개국에 1300여 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해왔다.

손흥민, 아스널전 출격… 3연속 득점 도전

합류 후 3연승 거두며 상승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손흥민(사진)이 3경기 연속 득점에 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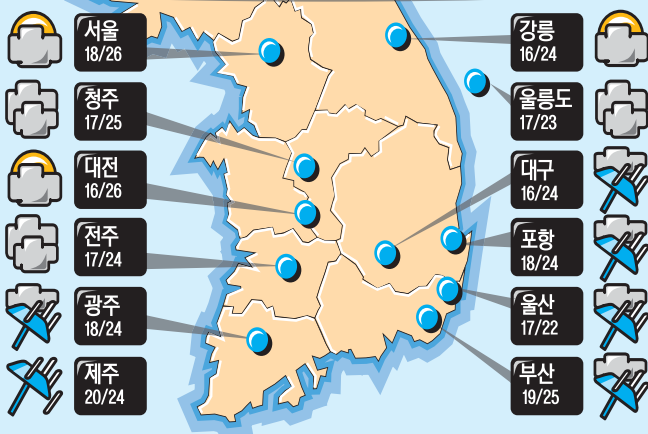
손흥민은 24일 오전 3시45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리는 아스널과의 2015-2016시즌 캐피털원컵(리그컵) 3라운드 '북런던 더비' 홈경기에서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토트넘과 아스널의 더비 경기는 유서 깊은 대결로 영국 현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는 경기다.

토트넘에서의 첫 경기였던 선덜랜드전에서 '조용한 데뷔전'을 치렀던 손흥민은 두 번째 경기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카라바크(아제르바이잔)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했다. 지난 20일 EPL 홈 첫 경기에서는 팀 공격을 주도하면서 결승골까지 터뜨려 '400억원의 사나이'로 제몫을 다했다.

3무1패로 승리에 목말라 있던 토트넘은 손흥민이 합류한 뒤 3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토트넘으로서는 2008년 리그컵 준결승에서 아스널을 5-1로 대파하고 결승에 진출해 첼시까지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기분 좋은 기억을 재현할 기회이기도 하다.

/하희철 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8		3
				6			5	9
					3	6	4	7
8		1	3			5		2
			2		7			
3		5			1	7		4
9	8	3	6					
4	5			3				
2		6	4					

				7		6		
3			4					8
4	8	7		9	2			
	7	4				2	5	
	9			8			3	
	5	3				8	9	
			1	5		4	2	3
1					7			9
		5		3				

스도쿠 정답

7	6	4	5	9	2	8	1	3
1	3	8	7	6	4	2	5	9
5	9	2	8	1	3	6	4	7
8	7	1	3	4	6	5	9	2
6	4	9	2	5	7	1	3	8
3	2	5	9	8	1	7	6	4
9	8	3	6	2	5	4	7	1
4	5	7	1	3	8	9	2	6
2	1	6	4	7	9	3	8	5

5	1	9	3	7	8	6	4	2
3	2	6	4	1	5	9	7	8
4	8	7	6	9	2	3	1	5
8	7	4	9	6	3	2	5	1
2	9	1	5	8	4	7	3	6
6	5	3	7	2	1	8	9	4
7	6	8	1	5	9	4	2	3
1	3	2	8	4	7	5	6	9
9	4	5	2	3	6	1	8	7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 can't get rid of this backne

A: Why'd you cancel on the Busan trip? Suji says it's cuz of work but I know that's not true.

B: It's embarrassing.

A: I won't tell anyone. Spill.

B: I don't want to wear a bathing suit.

A: Oh, don't be silly. We all feel self-conscious about our bodies. But you're the skinniest one of us!
If we can bare it all so can you!

B: It's not my weight. It's my skin.

A: Your skin is immaculate!

B: Not my face… my body!
I can't get rid of this backne. :'(

A: That's all? Why didn't you just say so! I know a dermatologist that can clear that up in no time.

내 등드름을 없앨 수가 없어

A: 부산 여행 왜 취소했니? 수지가 일 때문이라고 하던데 난 아닌 거 다 알아.

B: 민망해서 말하기 그래.

A: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빨랑 불어.

B: 수영복 입고 싶지 않아.

A: 아, 바보같이. 우린 다들 몸에 대해 남의 시선을 의식하긴 해. 하지만 니가 우리 중에 젤로 말랐잖아!
우리도 괜찮은데 니가 왜 못해!

B: 몸무게 때문이 아냐. 피부가 문제야.

A: 니 피부는 완벽 그 자체야!

B: 얼굴 말고… 몸! **내 등드름을 없앨 수가 없어!**

A: 그게 다야?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그거 바로 치료해줄 수 있는 피부과 의사 아는데.

* cuz of: because of의 약어
* backne: back+ acne, 등과 여드름의 합성어, 등드름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남자친구와 궁합이 궁금합니다
상부상조 운세… 조금씩 양보하시길

찐♡ 여자 84년 12월 2일 양력
남자 84년 2월 20일 양력 11시~11시30분

Q 조급한 마음에 다시 올립니다. 여자 84년 양력 12월 02일 생이며 남자 84년 양력 2월 20일 오전 11시생입니다. 나이도 있고, 주변에서 결혼에 대한 얘기가 많아 조급하고 걱정된 마음으로 상담 드립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결혼에 대한 확신은 아직 이네요. 결혼은 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저 개인의 결혼 운과 남자친구와의 궁합 부탁드립니다.

A 궁합을 본다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가장 중요한 인생을 설계해 갈 때 그 배우자의 성격이나 생활습관이나 모든 것이 잘 맞아야 긴긴 세월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외모와 경제적인 능력을 우선시 하다 보니 거래 같기도 하지만 우선은 남자와 여자의 사주를 보고 두 사람의 사주가 서로 잘 맞는지와 직업이나 성격 체질 등을 봐야 할 것입니다.
궁합의 좋고 나쁨을 보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각자 태어난 연도의 띠별 궁합으로 삼합이나 육합 충이나 해(害) 원진살을 보는데 중요할 수도 있겠으나 보편적 미미한 정도의 확률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문제와 능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분은 외형적으로는 평범하며 귀하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남편분이 상부상조 하여 극복 하도록 해주며 남자 분 사주에 귀하가 운이 승발 하므로 가정을 잘 꾸려 나가며 심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한편 귀하의 사주에서 남편이 승진하고 성공하도록 내조를 잘해주므로 자신도 더불어 명예를 얻게 되므로 좋은 궁합으로선흉후길(先凶後吉)한 궁합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결혼 초에는 서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옥신각신 하여 심적 고생이 있으나 자식을 낳은 후부터는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이어지며 부부 간에 이해심 또한 빛을 발하게 되니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위해 조금씩 양보를 하여 근심 걱정이 적고 뜻한 바가 이뤄지는 격입니다.
이론적인 설명인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남자가 결혼하려는 의지가 약하며 2015년 12월 2016년 4월에 헤어질 수 있는 기운이니 유념해두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23일 (음 8월 11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소망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60년생** 짭짤한 수입 등으로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72년생** 동료의 유혹에 동조되지 마세요. **84년생**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49년생 아직 귀하의 때가 아닐 것입니다. **61년생** 여태껏 노력을 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73년생** 만사가 평온합니다. **85년생**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도 이로울 것입니다.

50년생 많은 이득이 따르는 계약 건이 체결됩니다. **62년생** 유명한 회사에 특채로 입사하게 되겠습니다. **74년생** 일이 많아지나 마음은 편안합니다. **86년생** 누구나 때가 있는 법입니다.

51년생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63년생**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75년생** 고집부리지 마세요. **87년생** 부주의로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52년생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64년생** 윗사람의 충고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76년생** 하늘에서도 복을 내리는 형상입니다. **88년생**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53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습니다. **65년생** 자손들이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77년생** 사업이 번창일로에 있습니다. **89년생** 남성은 훌륭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며 여성은 출가를 합니다.

54년생 분수껏 행동하는 것이 유익 하리라 봅니다. **66년생** 본인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볼 때입니다. **78년생** 권력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90년생** 애정운이 길합니다.

55년생 귀하 혼자의 힘으론 버거운 사업입니다. **67년생** 모든 것은 항상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79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조심하세요. **90년생** 무사 튼튼하게 노력하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56년생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을 주의하도록 하세요. **68년생**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세요. **80년생** 겸손함을 잊지 마세요. **92년생** 전업이나 취직 등은 어려운 운입니다.

57년생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유리합니다. **69년생** 환경을 바꾸지 말고 자중함이 좋을 것입니다. **81년생**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93년생**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58년생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으니 분명히 이루게 됩니다. **70년생** 꾸준한 노력으로 이겨 내야 합니다. **82년생** 이성과의 데이트가 있겠습니다. **94년생** 성공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59년생 장거리 여행에도 장애가 없습니다. **71년생**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83년생** 늦은 귀가는 금물입니다. **95년생** 직장내에서의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과 후회를 줄이는 방법

최치선의 세상만사

최근 인간생태학을 연구하는 칼 필레머 코넬대 교수가 2004년부터 진행한 '인류유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칼 교수는 65세 이상 총 1500명 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프로젝트 취지에 대해서 '삶에 대한 지혜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그 중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대부분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는 대답이었다.

이말은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나 선배들한테 자주 듣던 '미리 걱정하지 마라'는 조언과 같은 뜻이다. 즉,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고민한다는 건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것이다.

걱정은 곧 '스트레스'를 낳는다. 이 스트레스가 바로 면역력을 파괴시켜서 암, 중풍, 치매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

칼 교수는 걱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걱정은 실제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우리는 실질적인 고민대상이 없음에도 앞서 걱정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부정적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칼 교수의 프로젝트 중 또 하나 의미있는 내용은 살면서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자원은 시간이다. 우리는 다시는 잡을 수 없는 시간을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낭비하고 있다. 게다가 그 실체하지 않는 걱정 때문에 오해를 쌓고 스트레스를 받아 자신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

칼 교수는 걱정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장기적인 목표보다 단기목표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능하면 하루의 일만 생각한다. 그리고 걱정하는 대신 걱정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 만약 무언가를 두려워 한다면 적어도 그것을 왜 두려워 하는지 이해하고 실체를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때로는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리는 것도 현명하다.

하지만 살다보면 얽히고 설킨 관계 때문에 걱정으로부터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연인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칼 교수의 조언처럼 내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걱정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실체를 알게 되면 생각보다 걱정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지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이나 고민의 실체에 대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고 자신이 살고 싶은 삶 대신 주위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삶을 살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고백한다.

그러면서 죽어라 일을 하며 놓치거나 멀어진 자신의 꿈과 사랑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 후회했다.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다는 점도 걱정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갈망한 날'이기 때문에 시간은 누구에게나 더없이 소중한 자원이다. 끝으로 칼 교수는 남은 시간을 걱정하며 낭비하기보다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면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인생의 후회를 줄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부장

社說

메르스 핵심책임자 국회 증언대 서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정감사가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겉돌았다.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메르스 국정감사'는 출석 증인에게 질의 하나 하지 못한 채 끝났다. 국감이 메르스 사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열렸지만, 여야가 증인공방만 벌이다 산회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의 증인출석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최원영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증인채택을 아예 거부했고, 문형표 전장관은 증인으로 채택되기는 했지만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7일전 증인 통보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불출석의 명분이었다. 그러자 이목희 안철수 등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 채택이 안됐거나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반박했다. 이 때문에 증인을 상대로 한 질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여야 간 말싸움만 벌인 것이다.

메르스 사태는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희대의 사건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혼란과 마비를 겪고, 경제도 심각하게 위축됐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발길도 뚝 끊겨 버렸다. 국가의 '보건안보'가 사실상 붕괴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따지고 밝히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보건안보' 책임자들의 국회 출석과 증언이 필수적이다. 문형표 전장관과 최원영 전수석 같은 사람들은 핵심책임자들이다. 이들을 빼고 열리는 국감은 무의미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번 사안은 정부여당이 좀더 겸허해야 한다. 온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두고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면 공연한 억측만 불러일으킨다. 여당의 옹졸한 태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보건안보' 붕괴 책임자들은 국회 증언석에 서야 마땅하다.

너도나도식 외식시장 진출 문제 없나

기자 수첩

정 은 미
<유통부>

외식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던 기업들의 외식업 진출이 늘고 있다.

연예기획사와 건설업체까지 사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외식 사업에 앞 다퉈 뛰어들다 보니 우후죽순식의 사업 진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달 초 서울 청담동 본사에 지상 4층 1653㎡(약 500평) 규모의 프리미엄 레스토랑과 카페 '숨(SUM)'을 론칭했다. SM은 자회사인 SM F&B를 통해 외식 브랜드 SUM을 집중 육성한 뒤 해외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돼지고기 프리미엄 브랜드 '삼거리 푸줏간'을 오픈했다. 지난 2004년 홍대 인근 실내형 포장마차 '삼거리포차'로 외식사업의 시작을 알린 YG는 올해 신규법인 YG푸드를 설립하고 외식·식품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건설업체도 외식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대우산업개발은 2011년 외국자본에 인수된 이후 '브리오슈도레'라는 세계적인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를 국내에 선보이고 있다. 건영(구 LIG건설)도 외식전문기업인 씨티F&B를 계열사로 두고 퓨전 중식 브랜드인 '하오커'를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 등 유통 공룡들의 문어발식 외식업 진출도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기업들의 외식사업 진출은 외식을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하지만 차별화된 경쟁력이 없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매일유업, 남양유업, 삼양식품 등의 식품 기업들도 사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외식사업에 진출했지만 기존 사업과 이렇다 할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적자 운영에 사업을 접고 있다.

특히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들의 너도나도식의 외식업 진출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환절기 피부 관리, 잘못하면 독

생활건강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됐다.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부위는 피부로 특히 갑작스레 건조해진 날씨는 다양한 피부 변화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환절기에는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는데 이 때 잘못 관리를 하면 오히려 건강이 상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환절기에는 각질이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여드름, 안면홍조와 같은 기존 피부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요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외모 관리에 관심이 높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다양한 뷰티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손쉽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정보 속에는 잘못된 정보도 있기 때문에 맹신은 금물이다.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관리법으로는 '잦은 세안, 각질 제거, 모낭충 제거'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세안은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기본 조건이다. 특히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처럼 자외선 차단제나 메이크업을 한 후에는 세안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그러나 하루 2~3회 이상의 잦은 세안은 오히려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무너뜨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

두번째로 좋은 피부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관리법 중 각질 제거도 빼놓을 수 없다.

세번째는 피부 속 모낭충의 존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다. 하루 1~2회 세안만 잘해도 모낭충을 제거할 수 있다.

이처럼 과도한 피부 관리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TV나 온라인 상에 소개된 정보를 무조건 믿고 따라 해 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각기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른 만큼 자신의 피부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사

◇국민권익위원회△과장급 전보▷공익보호지원과장 배문규△과장급 파견 ▷법제처 양동훈
◇중소기업중앙회△상근이사 전보▷경제정책본부장 소한섭 ▷회원지원본부장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 김경만 ▷개발원 활성화추진단장 박해철 ▷공제사업본부장 황윤하
◇김포시△4급▷복지문화국장 이성구 ▷의회사무국장 최돈행△5급 ▷회계과장 이종상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징수과장 장양현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주택과장 이근수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수도과장 이순기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통진읍장 전종익 ▷사우동장 박창원 ▷풍무동장 심재인
◇청주시△5급 승진 내정▷김정희
◇KBS ▷부산방송총국 기술국장 직무대리 이창호

부고

▲박영애씨 별세, 조용익(전남도청 대변인)씨 빙모상 = 22일 오전 10시30분, 광주 그린장례식장 3층 10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 062-250-4455
▲백경순씨 별세, 권혁찬(청주시 오창읍 시설팀장)씨 모친상 = 22일 오전 9시, 인천 청기와장례식장 303호, 발인 24일 오전 8시 30분. ☎ 032-577-0497
▲신경재씨 별세, 손석희(JTBC 보도담당사장)씨 장인상 = 22일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30분. ☎ 02-3410-3151
▲안식환(전 서울시 부이사관)씨 별세, 조홍석(삼성서울병원 커뮤니케이션팀장)씨 빙부상 = 2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4일 오전 5시. ☎ 02-3410-6915

www.ywtour.com
제18회
김삿갓문화제
10.9금 -10.11일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김삿갓유적지 일원
주최·주관 영월군 YEONGWOL COUNTY 시선김삿갓유적보전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강원도 KANGWON PROVINCE High1 Resort 하이원리조트